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 제 출 문

---

대전문화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기분 좋은  
대표 황 상 훈



###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황상훈      기분좋은QX(주) 대표

공동연구원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서진숙      기분좋은QX(주) R&C 차장

연 구 원      안혜영      기분좋은QX(주) R&C 팀장

연구보조원      박성희      기분좋은QX(주) R&C 연구원

자문 위원      송경희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자문 위원      임재춘      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 목 차

1.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2.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 .....	3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개념 .....	3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7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변천 .....	9
3.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변화 .....	14
1) 문화예술교육 환경 변화 .....	14
2) 지역문화정책환경의 변화 .....	21
3)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32
4) 연관 사례 .....	38
4. 대전광역시의 현황 .....	52
1) 일반 현황 .....	52
2) 역사 .....	53
3) 입지 .....	55
4) 인구 및 지역구성 .....	56
5) 경제 .....	58
6) 주요정책 .....	59
7) 대전의 주요 사회지표 .....	65
5.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교육정책 .....	76
1)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	76
2)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현황(2015년 현재) .....	81
3) 정책사업별 상세현황 .....	85
6.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석 .....	106
1) SWOT분석 .....	106

2) 문화예술교육관련자 FGI .....	109
3) 문제점 및 쟁점 도출 .....	115
7.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향후 전략 .....	121
1) 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121
2) 기본방향 .....	125
3) 추진전략 .....	136
4) 목표와 과제 .....	138
5) 단계별 주요 추진 방안 .....	147
8. 제언 .....	148

## 〈표 차례〉

[표1]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단체	4
[표2]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차이점	6
[표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주요내용	9
[표4] 시대별 산업 발전 동력	16
[표5]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규모 변화	20
[표6]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30
[표7] 2014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전략	34
[표8] 대전광역시 예산구조	38
[표9] 대전지역의 인구분포	42
[표10] 민선6기 대전광역시 주요 공약 사업	45
[표11] 대전 학교예술강사파견사업 성과	64
[표12] 대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성과	64
[표13] 대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성과	65
[표14]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성과	65
[표15] 대전 아티언스 캠프/ 문예아카데미 성과	65
[표16] 대전광역센터 2015년 주요 사업	67
[표17] 대전광역센터 2015년 예산 편성	69
[표18] 대전시 학교예술강사 사업 현황	72
[표19] 2013년 대전 학교예술강사사업 장르별 분포	72
[표20] 2013년 대전 학교예술강사사업 교육과정별 분포	73
[표21]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현황	73
[표22]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중앙-광역센터 간 업무분장	74
[표23] 2015 꿈다락 프로그램 세부사업	76
[표24] 2015 대전 지역 꿈다락 사업 진행 현황	76
[표25] 서울센터의 꿈다락 프로그램 유형	79
[표26] 경기센터의 꿈다락 프로그램 유형	80
[표27] 2015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81
[표28] 2014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추진 실적	84
[표29] 2014 아티언스 캠프 사업 프로그램 내용	88
[표30] 가족동행프로젝트(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90
[표31] 창의적 환경요인 분류지표	93

[표32] 광역지원센터 인력 현황	105
[표33] 광주광역센터의 사업 분류	108
[표34] 2011 지원사업 참여단체 대상 조사	115
[표35] 스케일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배치	124
[표36]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목적	129
[표37]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기본원칙	130
[표38]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지자체 임무	131
[표39]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문화예술교육 계획수립	132
[표40]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지원협의회 규정	133
[표41]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광역센터의 주요업무	134
[표42]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전문인력 관련 조항	135
[표43] 대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전략	136
[표44] 추진전략의 기능별 재구성	138
[표45] 서울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139
[표46] 대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단계별 주요 추진방안	147

## 〈그림 차례〉

[그림1] 대전의 1인당 근로소득	44
[그림2] 대전의 고용률	44
[그림3] 대전시 동별 인구분포	51
[그림4] 대전의 분거가족 이유	52
[그림5] 대전의 월평균 가구소득	53
[그림6] 대전 가구의 소득만족도	53
[그림7] 대전의 가계 부채 현황	54
[그림8] 대전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경험	56
[그림9] 대전의 연구기관 현황	58
[그림10] 대전의 지식재산권 증가현황	59
[그림11] 대전의 공공도서관 현황	60
[그림12] 대전의 영화관 및 스크린 수 변화추이	61
[그림13]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도	63
[그림14] 2015 대전 꿈다락 아우름 프로그램 개요	77
[그림15] 2015 대전 꿈다락 차오름 프로그램 개요	78
[그림16] 자유학기제 개요	122

# 1.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 대전시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변화에 대응) 2014년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인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에 따른 지역문화 역량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
- (대전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의 장단점 및 특성 파악과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 필요

### □ 연구 목적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정책 현황 파악 및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① 대전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② 대전 문화예술교육 수요 파악
- ③ 대전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 및 체계 조사 분석
- ④ 대전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추진 방향 조사 및 분석
- ⑤ 대전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따른 개선 사항 도출
- ⑥ 대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향 제시

## 2) 연구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전 지역

② 시간적 범위 : (2015년 현재까지 진행된)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③ 내용적 범위 :

○ 대전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조사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수요 조사 및 분석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 조사 및 분석

○ 대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요 조사

-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인터뷰(FGI) 및 분석
- ※ 재단 등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문화예술교육 강사,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대상

○ 대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및 방향 분석

-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추진현황과 방향 조사 및 분석
-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조사 및 분석
- 문화예술교육 대상·목적별 사례 조사 및 분석

○ 대전 문화예술교육 개선사항 도출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환경 분석
- 대전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전략 도출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비전 및 미션 도출
-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의 역할 및 방향성 도출

○ 대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 대전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 향후 대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

## 2.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

###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개념

#### ① 법제적 개념정의

- 현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법제적 정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하고 있으며, 법 내용상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과 연계되어 있음.
- 법적 정의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규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됨.

-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임.
-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동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칭함.

[표1]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단체

문화예술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li> <li>-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li> <li>-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li> </ul>
문화예술 교육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li> </ul>
각종 시설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li> </ul>

-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체계에 따라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분화된 체제로 발전해왔으며 대전을 비롯한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이 체제를 따르고 있음.

## ② 선행 연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정책적 개념정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 7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공식 합의하면서부터임.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김세훈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 한국에서는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등장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양현미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용어임. 예술교육 또는 문화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만 문화 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정책에서는 예술보다는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례가 등장한 것임.
-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서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각각의 고찰이 필요함.

[표2]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교육, 미술교육, 연극교육 등 개별 예술장르들에 관한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li> <li>- 미국의 국립예술진흥기금은 "예술을 배우고 상상력을 시험하고 잠재적인 창의력을 계발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음.</li> <li>- 예술교육이란 한편으로는 우수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직접 접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경험과 인식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하는 것임.</li> <li>- 예술교육은 유치원 이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의 예술교육, 고등학교 이후의 예술교육, 예비전문가와 전문가를 위한 예술교육으로 구분됨.</li> </ul>
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해득력(cultural literacy)을 길러주는 교육</li> <li>- 삶의 양식, 즉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관습, 의식, 태도 등의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3세계 이주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감수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li> <li>- 문화교육은 예술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교육과 구분.</li> </ul>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되, 교육이념으로서 문화교육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예술교육이 갖는 장르 중심성을 뛰어넘는 통합적인 교육방법을 수용하는 것으로 설정

##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영역이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를 의미함.
-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전” 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① 목표1 : (사회통합)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제에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에게 정서적 치유와 동기부여, 자기절제력과 타인에 대한 관용과 상호이해를 함양.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것임.
  -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로 창의교육/공동체교육/문화돌봄/사회통합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② 목표2 : (보편성)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을 학생과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 정책 도입 초창기 학생과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제2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라는 조항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전 국민이란 것을 명시하고 있음.
- ③ 목표3 : (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 문화예술교육 정책 파트너십 다변화,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과 운영 방식의 다양화,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문화부처와 교육부처가 중심이지만 타 부처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문화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장성을 꾀함.
  - 지역에서의 층위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자생성을 강화함.

- ④ 목표4 : (파트너십)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가의 창의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되는 한편,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와 확산에 대한 노력도 함께 추진
  - 참고사례로 영국의 국가주도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학교, 예술기관, 예술가와 에듀케이터, 지역사회, 정부 등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이를 연계하는 매개 전문가(Creative Agent) 육성을 중요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음.
- ⑤ 목표5 : (확산과 국제교류)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사례를 지역과 국제사회로 확산한다.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노력은 정책결정자, 예술가와 교육자, 참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정량적인 데이터의 축적을 통하여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책 통계의 수집·축적, 가공·공유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는 2004년 정책 도입 이후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으나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지닌 창의적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문화적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통합적 기능을 꾀한다는 것이 기본적 방향으로 자리해왔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별개의 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진흥, 문화복지, 지역문화 등 여타 문화정책과의 교집합적 공유와 사회정책, 교육정책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제시되어왔음.

###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변천

#### ①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화 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상정
-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 문화예술교육 기초 연구를 비롯하여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기반에 중점을 둠

[표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주요내용

1	문화예술교육 기초연구 및 국민인식 제고
2	유·초·중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3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	초·중등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5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6	문화예술교육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출처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보고” (문화관광부, 2004)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2004년,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발의
-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공포되었으며 2006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이 제정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 역량강화에 이바지하는데 목적

### ○ 지원법 주요 현황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규정(제2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회의 운영(제3조-제8조)
- 진흥원 설립(제10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제9조-제10조)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평가(제11조-제12조)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13조-제16조)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제17조-제19조)
- 국·공립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제20조)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의 수립

- 정책기반 조성 and 다각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이고 질적 활성화를 목적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and 사회 문화역량강화를 위해 4대 정책영역 and 15개 정책과제를 포함
- 지식·문화사회를 맞아 문화시민으로서 국민들의 창조적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를 목적
- 4대 정책영역
  -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 ■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2010)

- 2010년 6월 9일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발표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3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정책 대상을 학교, 취약계층 등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를 강화
  - 예술강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시 연수체제를 도입
-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핵심역량 중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할 것임을 발표함

## ■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2013년까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에 따라 2014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진흥원 설립

- 진흥원은 2005년 『민법』 제 32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시작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부칙 제 2조에 의거 2006년 특수법인으로 전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 진흥원의 업무
  -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교원의 연수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그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진흥원의 사업 규정

-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각종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립·수행·지원·평가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함.
-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홍보와 해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운영함.

#### ■ 진흥원 대표 사업

- 전국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강사 사업의 지원과 관리를 전담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분야 시범사업 시행
- 문화예술교육정책 개발 및 국제네트워크 업무

### ③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 필요성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립 추진
- 2010년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이 제시한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은 전국적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위의 교육센터의 필요성을 재확인

## ■ 광역센터 지정

- 문화부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센터 지정을 위한 지원을 공모하고, 각 광역지자체는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 응모를 접수받아 문화부가 광역센터로 지정 결정.

## ■ 역할 규정

-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이 지원 법에 명시.
- 중앙기관인 진흥원의 업무에 준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최우선적 목적이 있음.

## ■ 현재 사업 및 비전

- 현재까지는 주로 중앙기관(문화부,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문화예술교육 수행 단체의 역할에 치중된 곳이 대부분이나 최근 서울 등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와 정책적 성숙이 앞서 가는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곳도 존재.
- 향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음.
- 특히 2014년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3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확충”과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이는 광역센터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음.

### 3.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변화

#### 1) 문화예술교육 환경 변화

##### ①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확산과 역할 증대

- 문화예술교육은 인류의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왔으며, 최근 국가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에도 우리 삶의 내용 속에 존재하여왔음.
-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와 세계화의 거센 경쟁 속에서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의 핵심으로 창의적인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있음<sup>1)</sup>
- 이러한 인력 양성과 창의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는 2004년 「창의 한국」에서 변화하는 21세기 문화의 비전으로 창의성을 제시하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감수성 증진과 사회적 소통능력 배양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주요한 내용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확산의 배경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음.<sup>2)</sup>

-

##### 첫째, 국제적인 흐름

19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는 문화예술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창의력과 소통능력을 증진한다는 신념하에 새로운 국가인력정책을 수립함. 영국의 ‘창의적인 영국(Creative Britain)’, 미국의 ‘창의적인 미국(Creative America)’,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이은 ‘문화예술교육재활성화계획’ 등

##### 둘째, 문화민주주의적 가치 창출

현대 문화정책이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증진하고, 국민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인식하는 전환의 토대 위에 문화민주주의적 가치의 창출을 매우

---

1) 영국은 1998년 창의적인 영국(Creative Britain) 발표했고 미국도 2000년에 창의적인 미국(Creative America)을 발표함.

2) 이은진, ‘지역과 문화예술교육’, 「금천매개자 교육 강의를」, 2011

중시한다는 데에 있음.

셋째,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입

교육의 문제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협력이라는 틀 속에 ‘인적자원개발 회의’라는 범정부적 논의 틀을 갖추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데 있음. 이러한 교육 영역에서의 환경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교육을 만나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

넷째, 문화운동 및 문화예술교육운동의 실천

문화예술교육정책 도입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던 다양한 문화운동과 문화 활동,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들은 문화예술교육이 포괄하는 영역과 내용을 확장시켜옴.

- 문화예술교육이 창의 인성 개발에 기여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 및 혁신, 통합에 기여하기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계속 다양화되고 확장되는 추세임.
-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를 통해 정리된 예술교육 로드맵은 이를 다음과 같은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교육 및 문화 참여에 대한 인간의 보호권리
  - 둘째, 21세기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전들에 맞서는 역량으로서의 개인의 능력 개발
  - 셋째, 교육의 질 개선
  - 넷째,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 활성화

## ② 21세기의 문화예술교육 흐름들

- 세계적으로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증가
- 문화기반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창의력<sup>3)</sup>
- 20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 문화와 창의력이 핵심적인 발전요인이 됨.
- 그 결과, 문화예술교육을 중시하고 크게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교육방법도 장르 중심 예술교육에서 타 분야와 결합된 융복합 교육으로 전환됨.
- 뇌 과학 등 첨단 학문은 물론 적정기술까지 광범위한 분야와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음.

[표4] 시대별 산업 발전 동력

구분	1980년대 제조업 기반경제	1990년대 지식 기반 경제	2000년대 이후 문화기반경제
발전동력	노동력의 질과 가격	기술과 품질	기술, 감성, 이미지, 체험

- 문화예술교육이 중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술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역할 때문임.
- 최근 문화예술이 공동체 회복과 주민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예술 활동이 복지·의료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이 밝혀짐.
- 최근 시민 주체의 예술 활동이 취미, 여가활동이 아니라 인문학적 성찰과 예술

3) 문화관광부, 문화강국 C-Korea 2010, 문화관광부, 2005, p.8.

활동을 통한 실천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하는 예술교육이 크게 각광받고 있음.

〈공동체 문화예술교육 사례 1〉

로데사 존스 (Rhodessa Jones ; 배우, 무용가, 가수, 작가)

1) 캘리포니아 교정시설의 변화

25년간 캘리포니아의 수감자가 8배 증가하면서 여성 재소자 수가 남성보다 많아짐

2) 로데사 존스는 댄스 강사 신분이었지만 예술교육을 실시

- ▷ 댄스는 건강과 즐거움을 주지만 예술을 통한 성찰은 불가능함
- ▷ 무용가를 뽑지 않아 댄스 강사로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술교육을 실시
- ▷ 독서, 토론을 통한 자기 성찰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 부여  
그 결과 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재수감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성과를 냄

3) 로데사 존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출소자를 위한 민간 프로젝트를 시작함

- ▷ 출소한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미디어 프로젝트를 설립함
- ▷ 출소자의 인격적 성숙은 물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술을 통해 변화시킴



〈공동체 문화예술교육 사례 2〉

코너스톤 극단 (Cornerstone Theatre Company)



- 1) 삶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예술
  - ▷ 공동체 연극을 통해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창작을 통해 현실의 문제 해결을 추구함

2) 창립과 주요 활동

- ▷ 1986년 지역순회극단으로 창립, 1992년 L.A에 정착
- ▷ 창립 이후 50명 이상의 극작가와 80편 이상의 작품을 공연
- ▷ 새 연극방법론을 2,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
- ▷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을 연작 형식으로 공연하며, 지금은 기아와 정의, 식품 공정성을 다룬 ‘굶주림 사이클’ 을 공연하고 있음

3) 창립과 주요 활동

- ▷ 9.11 WTC 테러 직후, 서로 다른 인종-종교 공동체와 함께 테러가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룬 작품 10개로 이루어진 연작을 발표하였음
- ▷ 신앙이 인간을 분열시킬 것인지 어울려 살게 할 것인지를 묻는 이 작품 연작은 911테러가 미친 영향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들었으며, 공동체 연극의 가치를 증명해 낸 것으로 유명함

### 〈공동체 문화예술교육 사례 3〉

#### 리즈 러먼(Liz Lerman)과 댄스 익스체인지 (dance Exchange)

##### 1) 무용계의 새로운 이단아 댄스 익스체인지

- ▷ 러먼의 댄스 익스체인지 무용단은 현대 무용의 한계를 확장한 무용단으로 유명
- ▷ 전문 무용수 이외에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하는 것을 즐김
- ▷ 무용단은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연령 폭도 넓으며(16세~86세) 장애인도 정단원으로 활동함

##### 2) 다양성을 기초로 무한하게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구축

- ▷ 2000년대 초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제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예술가들이 참여한 “기원에 대하여(The Matter of Origin)” 시리즈를 발표함
- ▷ 미디어 프로덕션과 춤이 중심이 된 이 프로젝트는 타 분야와 예술가, 과학 기술자들과의 협업에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평가됨



- 이 외에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업예술가들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최고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
- 이 사례들이 알려주는 것은 공동체 예술을 지역주민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즐길 거리가 아니라 당당한 창조적 예술행위로 인식하고 접근할 때 놀라운 창조력이 발휘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 예술은 마을만들기, 지역 공동체 운동, 공유경제 운동 등이 맞서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③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 ■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도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침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인문학적 성찰보다 기량교육 중심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함.
- 2005년 관련 법 제정과 기구(이하 진흥원)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10여 년간 “학교문화예술교육” 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으로 구분되어 추진된 사업규모는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함.

[표5]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규모 변화

구분	2005년	2014년
사업규모(대분류 기준)	5개	30개 (6배 증가)
예산 규모(천원)	8,840,000천원	115,224,000천원 (13배 증가)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p.18

#### ■ 문화예술교육의 모범 사례가 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대회를 통해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정착시킨 나라로 평가되었음.
- 유네스코는 문화예술교육 서울대회의 성공으로 문화예술교육주간(5월 4째 주)을 제정.

## ■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 현재까지의 문화예술교육은 기량위주의 예술교육과 인문적 성찰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기량위주의 예술교육은 공연,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목표이며, 주민 자치센터나 학교의 교육이 대부분 이에 해당함. 예술을 개인 취미활동으로 보는 관점이 깔려있음.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이해함. 공연을 통해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성찰과 변화의 계기를 주는 것은 이미 일반화 된 사례임.

## 2) 지역문화정책환경의 변화

### ① 지역문화의 개념의 심화와 확장

## ■ 지역문화 정책 확산의 배경

### ○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한계

- 1970년대 초반 형성된 한국의 문화예술진흥정책제도의 기본적 방향은 유신 정권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가주의가 강하게 관철되어 나타남. 국가주도, 민족주의, 고급예술 중심이 기본 방향으로 자리잡음.
-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대중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나 제도적 틀로 자리잡은 국가 주도, 고급 예술 중심의 관성이 쉽게 변화하지는 못했으며 현재에도 제도의 틀 속에는 과거 국가 주도 문화정책의 흔적이 쉽게 발견됨.(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지역문화의 경우, 과거 국가 중심의 문화정책의 틀 안에서는 소외되거나 전체 국가문화의 작은 일부분으로 평가되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의 변화

가 이뤄지면서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거버넌스(협치)의 등장, 민간자율과 작은 정부

- 민주화 이후 국가 운영의 정부 주도성을 탈피하여 전통적 의미의 중앙·지방정부 행정 기능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등장.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분권화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음.
-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또는 네트워크 체제 즉, 거버넌스 체제의 효과적 구성·운영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자율성, 민주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임.

○ 지역 문화의 욕구 증대

-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향토문화를 가꾸고(문화원), 문화예술 활동을 벌이고(예총, 민예총, 문화동아리), 지역을 문화적으로 바꾸고(문화기획자, 문화시민운동가), 문화적 참여기회의 확대를 꿈꾸던(문화자원봉사자, 문화 마니아)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서 지역문화역량의 수요가 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정책은 지역문화의 욕구에 걸맞는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문화자치를 목표로 함.

○ 공급자 중심의 시설 운영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중심 정책으로의 변화 필요.

- 지역문화정책의 변화에는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시설 운영에 머물던 소극적 문화예술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 중심 정책으로 정책적 마인드 변화가 요구됨.
-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설관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주체들을 형성, 발전시키고 이들의 수요와 욕구에 따른 기능의 부여와 운영의 방식이 고민됨.
- 과거의 문화행정은 건립해 놓은 것이 있고, 개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뿐, 지역주민의 삶과 건립된 시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문화예술 시설들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을 보였음.

-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어떻게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냐 하는 측면이 고려되기 시작함.

## ■ 지역문화진흥정책을 둘러싼 주요 정책기조와 방향

### ○ 문화의 민주화 정책

- 문화의 민주화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화
- 문화정책은 고급예술에 대한 입장에 따라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로 양분됨.
- 프랑스의 문화장관 “앙드레 말로”는 고급예술이 문화발전의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보급하고 예술교육을 책임지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펼쳤음.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구상은 엘리트주의 정책이라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문화의 집만큼 중시한 예술교육은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로 무산되다시피 했으며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지자체들이 크게 부딪치면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이 정책은 프랑스가 세계의 문화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 문화 민주주의 정책

- 문화 민주주의 정책 : 모든 사람들의 문화
- 문화의 민주화 정책과 쌍벽을 이루는 문화민주주의 정책은 고급예술보다 스스로 만드는 문화를 더 중시하는 정책으로 60년대 민권운동과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음.

- 일방적인 가치의 강요를 거부하고 대중예술, 지역고유의 예술,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가 갖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지역주민과 노동자,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함.
-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중시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문화민주주의’ 영향을 받은 것임.
- 다양한 예술이 가능한 대중예술 공연장, 시민들의 예술창작 공간 조성 등이 주된 정책임.

○ 창의산업 육성 정책 :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 추구

- 문화경제 활성화 :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 추구
- 창조산업 육성정책 : 문화기반 경제로의 변화에 대응
  - 경제에서 예술의 중요성 확대 → 디자인 등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
  - 영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한국도 이러한 정책을 일부 도입하고 있음(2004년 창의한국 발표)

② 관련 법 제도의 도입과 분석

■ 문화기본법

-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 받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일종의 모법으로 기능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민의 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더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중요

한 문화정책의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음.

- 문화기본법 5조를 보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와 9조를 보면,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또한 제10조 "문화인력의 양성", 제11조,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13조 "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조항들은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개별 법 조항에서 지원 근거를 갖고 있었지만,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는 특별함을 부여받게 되었음.
- 문화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 문화권이 법적근거로 정의된 만큼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 지역문화진흥법

-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의 문화예술계로부터 지역문화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앙정부 역시 지역문화의 자생적 발전구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함.(2001년 “지역문화의 해” 선포)
- 200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위” 결성.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문제와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법제화가 좌절됨.
- 그러나 19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약속함. 이에 2013년 12월, 법률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여년 만에 “지역문화진흥법” 7개의 장과 24개조의 조항으로 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이 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제3조)에 근거한 책무(제4조)를 지게 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과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의 사업(제8조, 제9조)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제10조)하고,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11조),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게(제16조~18조) 되었음.
-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관(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제도적, 사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을 확충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 장이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비교적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 되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역문화시설, 인력, 제도, 법률적 강제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체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적 변화라 할 것임.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중단기적으로는 지역문화역량 강화와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문화자치 관점에서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음.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2015년 5월 제정.
- 이 법에서 포함하는 ‘여가’의 개념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이며 다음의 활동들이 포함됨.
-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여가시설, 여가교육, 여가산업, 여가전문 인력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고 있음.

- 국민 여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일과 여과의 조화’ (동법 제5조)라는 표현으로 정의 내려져 있음.
- 국민여가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및 시행계획 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이 5년 주기로 의무화되어 있음.
- 여가교육, 여가시설과 공간 확충, 여가전문인력 양성, 사회적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국민의 여가 생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 지원과의 관계에서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광의의 문화적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음.
- 이 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여가 활성화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 대한 사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 ③ 생활문화 개념의 도입

#### ■ 생활문화 개념의 배경

- 문화예술 활동의 전통적 관점은 생산자(창작자) - 소비자(향유자, 수용자)의 이분법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거나 생산자 - 매개자 - 소비자의 단선적 연결로 이해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문화 활동의 증대와 시민문화의 자발적 문화욕구의 성장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소비, 혹은 향유 형태가 아닌 향유 행위 속에 참여와 생산, 혹은 재생산과 같은 능동적 향유행위를 발전시켜왔고 특히 대중친화적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문화소비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급(엘리트) 문화예술의 대중화가 중심을 이뤘던 ‘문화의 민주화’의 정책과 관점이 대중들의 문화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시민대중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여 스스로의 문화 취향과 욕구를 실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이 더욱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
-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능동적 문화 향유의 기반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여전히 다수의 대중들은 수동적 문화향유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문화정책과 문화운동은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에 밀착한 경험과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적 문화향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이런 흐름들은 한편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의 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이 말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처음 사용됨. 프로슈머는, 소비는 물론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 혹은 소비행위의 양태를 설명하는 의미임.
- 과거에도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동호회 활동이 있었으나 최근 법제화된 지역문화진흥법 등에서 생활문화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 프로슈머의 등장과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기서 생산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임.

#### ■ 생활문화 개념의 정책적 도입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 개념을 본격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음.

## ■ 생활문화 활성화의 기본 방향

- 생활권에 근거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님. 1950년대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 및 문화교육 사업이 있어왔고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6년에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문화 활동을 모토로 ‘문화의 집’을 전국에 조성하였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이 엘리트 예술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문화정책에서 생활권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강좌 등 단순기능 습득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뤄왔음. ‘문화의 집’ 도입 이후 시민들의 적극성에 기반한 문화 참여를 주요한 가치로 삼는 새로운 방향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박근혜 정부 이후 ‘문화융성’의 가치를 내세우며 무엇보다 생활문화 및 문화향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세 번째 “문화융성”의 비전 목표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설정하였고, 추진전략 목표를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로 설정함.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라는 전략 목표에는 ‘개인’이라는 문화주체와 ‘모두가 누린다’는 문화향유의 확대라는 정책의 목표가 내재되어 있음.
-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권’이 법적으로 정의 내려지고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크게 사업지원과 시설지원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음.
- 문화융성위원회 안에 ‘문화나눔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민 문화 참여 일상화 및 문화 활동 증진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소관사항으로는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 △생활문화 활동 증진 및 문화 참여 활성화 △직원 동호회, 학생동아리 등의 문화 활동 활성화 △사회통합 및 치유 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 활동 및 문화 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시설 지원으로 전국 100여 개소(2014년 35개소, 2015년 25개소, 2016년 27개소)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생활문화 관련 활동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이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 관련 주요 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 관련 조항은 제1장 및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개념의 정의 및 지원, 공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2조 :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정의

제2장 7조, 8조, 9조 :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 및 시설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과 같음

[표6]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구분	주요 세부내용
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li> <li>-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li> <li>-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li> </ul>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생활문화

-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강화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 주민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문화취약지역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동호회 지원 확대
- 학생층 생활문화 수요층 편입 추진

○ 생활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 문화자원봉사 국민 인식 제고
- 온라인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문화시설의 문화자원봉사 운영 전문성 확대
- 은퇴자들의 재능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지원

■ 생활문화 정책 확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 환경의 변화

○ 생활권에 기반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요구

- 생활문화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문화역량의 강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 필요.

- 거대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활권에서 기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확충,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삼고 여기서 지역의 문화생태계 자생적 힘을 기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관련 자치법규 및 시설 검토가 요구됨.

○ 생활문화정책에 따른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구조의 변화 필요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층 생활문화 수요층 편입 추진.

- 시민 입장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과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은 체감적인 차이를 갖기 힘들. 물론 각 영역의 고유한 부분은 지켜져야 하겠으나 통합적인 지원구조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음.

### 3)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sup>4)</sup>

#### 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2013)

##### ■ 성과

##### ○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기회 확대

- 학교·복지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시설과 수혜자 증대

\* 지원시설 확대 : 4,517개소(2008년) → 9,619개소(2013년)

\* 수혜자 증가 : 120만 명(2008년) → 216만 명(2013년)

- 문화예술교육 강사 2008년 3,175명에서 2013년 6,795명으로 증가

##### ○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국내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법제도정비, 추진체계 구축, 예산확대 등
- 문화예술교육의 국제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 확대
-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개최(2010년), 유네스코 총회 서울 아젠다 채택 및 세계문화예술교육 기념주간 선포(2011년) 등

#####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확대

-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학교와 소외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 발굴

-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 소통을 배우는 한국형 엘시스테마꿈의 오케스트라(2010년)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2012년), 지역아동센터(2012년), 청소년 비행예방센터(2012년) 대상 등

-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2006년)

\* 소외지역 초등학교에 1인 1예능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2008년)

\* 예술강사가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2012년) 및 예술체험원정대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4 참조

(2012년) 등

-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2010년), 시민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2011년),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2012년), 의경·북한이탈주민 (2014년) 등

## ■ 한계

-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 일상의 욕구와 개인의 자발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현장의 미흡한 자발성의 문제를 드러냄.
  - 중앙에서 분배하는 방식의 지원시스템(정부→진흥기관→지역기관·단체·강사)의 사업구조로 인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움.
- 중앙집중적 문화예술교육정책
  -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문화단체 및 사회 커뮤니티와 상생하는 지역적 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지역의 문화단체 및 사회커뮤니티와 상생 관계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선순환적 문화예술생태계의 순환구조에 결합하지 못한 채 공급되어지는 측면이 드러남.
  - 또한, 문화예술생태계와 순환되지 못함은 물론, 지역적 자생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부재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중앙정부의 위탁 역할 수행자 역할에 머물고 있어, 지역의 진흥거점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 매개 역할이 미흡.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자활동가들이 중앙중심 사업구조로 편입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함.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준비 필요

- 단일 장르와 획일화된 교육과정, 통계정보 및 아카이빙시스템 미구축, 사업의 지역 간 유기적 연계성 부족의 문제
-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의 세분화 등 질적 향상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예술교육의 매개자(예술강사, 교육기획자), 교육관계자(공무원, 교원,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필요

②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 내용

■ 비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

■ 목표

- “행복” 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 “상생” 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 “발전” 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 추진전략

[표7] 2014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전략

추진 전략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③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④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⑤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
		⑧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 지역화 전략 내용

### ○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첫째,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체험과 배움 기회 확대
  -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의 지역거점기관 확대
  -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별 소단위 기관 양성 및 운영 지원
  - 박물관·미술관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확대 운영('13년 600개소 → '14년 700개소 → '17년 1,000개소)
- 지역 학교 및 문화기관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감상 기회 제공
  - 졸업예정 중고생의 감수성 발달 및 심적 안정을 위한 체험·감상 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들의 창의력·상상력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캠프 ‘우리마을 예술마당’ 지원

둘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 거점의 생활예술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전국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행복한 우리마을 문예인 프로젝트’ 확대 운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자생적으로 민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유도
- 지역 폐교·폐산업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주말·방학 예술교육 체험 캠프’ 실시
  - 폐산업 시설을 개조하여 시민 문화예술 창작전시 공간으로 활용
- 예술적 감수성의 조기 발달을 위한 지역 밀착형 아동 예술교육 센터 설치·운영 지원
  - 유휴시설을 활용한 아동 예술교육센터 설치 및 지자체·광역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

-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내 아동 특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의 문화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별 기획 공모 사업 확대(지자체 협조)
  - 지역별 이슈 도출 및 문화자원 발굴, 각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전략 수립 및 추진
  - 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 연속 지원(2년 이상) 등을 통해 17개 시·도별 지역 고유 브랜드 프로그램 안착

### ③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첫째, 문화예술교육 협업 체계 구축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역센터)의 위상강화 및 역할 확대를 통한 자율성·책임성 제고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권한 위임
  -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사업 주체 기능 이관
  - 각 광역센터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배치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 활성화 유도('15년~)
  - 지역의 진흥거점인 광역센터 운영지원 확대 및 처우개선 노력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9조) 상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실행력 강화
  - 자치단체장(위원장), 부교육감(부위원장) 등의 현 구성조건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유도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집행 및 학교-지역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반 마련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핵심 기능 재설정
  - 문화예술교육 ‘개별 사업 지원’에서 ‘종합 컨설팅’으로 중심 역할 제고
  - 미래선도과제 발굴, 지역 매개자 간 연계, 국제 협력기능 강화, 기초 연구 등 자생적 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집중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 발굴 및 협력
- 국공립 예술기관의 역량 및 프로그램을 활용, 예술교육 지원 체계 다변화
  - 기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도형에서 벗어나 국공립 예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주체 양성 사업 확대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조직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 발굴 및 지원 확대
    - \* (예)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르떼’ ,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 등
  - 기업 사회공헌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민간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지역화 전략 검토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역량이 떨어졌던 것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도입단계부터 중앙(문화부, 진흥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하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음.
  - 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최신 패러다임과 시도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으나 지역에서 이를 참고하여 사업을 실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못했고 추진체계 역시 이제 형성되어가는 단계임.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중심을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기본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됨.

#### 4) 연관 사례

##### 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사례<sup>5)</sup>

######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개요

- 광주는 ‘북구문화의 집’ 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08년부터 1년간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운영
- 북구문화의 집에서 시범사업 종료 이후,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주광역센터)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2009년부터로, 2009년 4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까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2011년 3월부터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이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광주광역센터의 사업목적은 첫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역량제고 및 주민 밀착형 교육서비스 제공, 둘째,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문화예술교육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 동반 관계형성과 네트워크 구축·강화,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등
- 광주광역센터가 지향하는 역할로는 첫째,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센터, 둘째,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인력개발센터, 셋째,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교류센터, 넷째,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센터,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 관리센터 등

---

5) 이다롱,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전남대 석사, 2014

[표33] 광주광역센터의 사업 분류

콘텐츠 기반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및 콘텐츠를 개발 보급
운영기반	광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광주광역센터 모델을 도출
네트워크 기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주체들이 교류하도록 매개 지원
인적 기반	문화예술교육과정 및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주체 양성
정보 및 인식공유기반	문화예술 교육현장의 사례를 수집하고 정보 가공하여 소통

- 연차별 계획으로는 1단계 ‘조성기(2009~2011) 운영 및 사업시스템 개발과 시행’, 2단계 ‘정착기(2012~2014) 정착화, 선순환 체계 확충’, 3단계 ‘발전기(2015~2017) 확산 및 자생성 강화’로 설계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 광주광역센터는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201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연구」에서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운영역량, 인력양성실적, 지원사업 추진실적, 지역 자립기반 구축 실적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되어 비교적 우수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사례로 꼽힘.

#### ○ 지원 사업 현황

- 광주광역센터는 2009년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실무협의회 운영, 동북아 한민족 교사포럼),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창의 예술학교운영사업, 아트힐링스쿨 운영사업), 정보화 사업(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 북카페 ‘북적북적’ 운영), 협력사업관리운영(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인력DB구축) 등이 주요사업임.

- 설립 당시의 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은 연차별 계획 2단계 정착기에 해당되며 정착기 계획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정착화(안정화)와 선순환 체계 확충이 있고 주요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광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사업추진 ·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 강화 · 확대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이 활용되도록 자원 및 지식의 정보화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지역자원의 역량 강화
- 이 사업목적은 세부사업계획에서 자세히 드러나며 네트워크사업, 프로그램 개발 · 보급사업, 정보화사업, 협력사업 관리운영, 그리고 2014년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교육인력양성사업 등이 있음.

### 〈네트워크 사업〉

- 네트워크사업의 경우, 해외문화교류사업이 2012년에 조선족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진행했고, 2013년부터는 아시아문화예술교육교류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동되면서 사업의 운영범위를 아시아로 한정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광주지역의 특성을 반영시켰다고 볼 수 있음.
- 같은 해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과 교수학습 이론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4년에는 아시아문화도시 교사와 문화예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열고 아시아 문화도시와 협력하는 MOU 체결 등이 있음.

###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사업〉

-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으로는 창의예술학교, 아트힐링스쿨을 실시 등이 존 재함.
- 창의예술학교는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시민의 창의성신장 및 문화감수성 함양을 돕고 자생적 모형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으

로, 광역센터에서 컨소시엄 기획공모를 통해 지역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12 광주 창의예술학교는 학교 밖 삶의 학교의 모형을 제시한다는 기틀을 지니고 ‘바퀴달린 학교’, ‘보헤미안 여행학교’, ‘도시축제 창의학교’ 등 세 가지 모형의 학교를 운영했음.
- 2013년에는 북구문화의 집이 운영단체로 선정되어 “삶과 예술배움청”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공동체 결과 함께 컨소시엄 형식으로 운영함.
- 2014년에는 같은 사업 명으로 바퀴달린학교, 보헤미안 여행학교, 시민인문학교, 노인예술야학(청춘자서전학교) 등 네 곳에서 각각 초등생, 청소년, 청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함.
- 아트힐링스쿨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센터가 함께 운영. 학교폭력에 방학급프로그램 지원 또는 학교모델개발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연극치유, 음악치유, 미술치유, 미디어치유, 춤몸 치유, 문학치유 등의 예술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이 2012년 총 12개 학교(광주지역 초·중·고·대안특수학교)에서 운영되었고, 2013년에는 총 10개 학교에서 운영됨.
-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워크숍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을 마지막으로 2년간의 아트힐링스쿨 운영사업이 종료.

#### 〈정보화사업〉

- 통신원제도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센터 구축 및 운영이 있음.
- 통신원제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통신원이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포함한 취재 이후 허브사이트와 뉴스레터를 통하여

소식을 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자체사업에 협력 사업들까지 가중되면서 광역센터의 자체사업들이 순  
탄하게 진행될 수 없는 까닭임.

- 아카이브센터의 경우, 2012년에 광주지역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광역센터가  
입주한 건물 1층에 재탄생함. 아카이브센터 구축사업으로 광역센터 내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도서와 자료들이 비치되었고, 관  
련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세미나 공간, 공연,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사업 관리 운영〉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운  
영사업이 있음.
- 광주광역센터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국악장르를 제외한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공예, 사진, 디자인 등 7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초·  
중·고·대안·특수학교에 파견함으로써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인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일상행  
복과 지역공동체 문화에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꿈다락)은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2012년  
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 예술강사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운영사  
업은 예산과 그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사업〉

-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협력사업으로 2014년 들어

광주광역센터가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중심의 단계별 실무연수과정을 진행함.

## ○ 현황과 한계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갈래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 문화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으로 2005년 시작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등 주로 문화·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2010년부터는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함.
- 2009년 광역센터 지정 당시,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명으로 관리 운영되었던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게 되었음.
- 여기서 ‘지역 특성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별 문화 현황 및 자원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을 의미
  - 둘째, 문화적 환경의 보편성(공통성)과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따른 특성을 포함
  - 셋째, ‘지역특성화’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소재 발굴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 특히 지역의 특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명시하는데 이는 소재, 대상, 인프라, 융합, 추진체계로 이루어짐.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재 : 인물, 역사, 문화재 등과 같은 지역고유의 자원
  - 대상 : 지역의 수요자와 수요의 특성, 즉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학습대상의 발굴 및 학습대상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참여도
  - 인프라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공급 및 시설(문화기반시설이나 생활권 단위의 주민시설)의 유형 및 운영현황
  - 융합 : 관련 영역 및 타 영역과의 결합(대상 지역의 주요한 이슈, 문제, 특성에 따른 복지, 교육, 생태환경, 농업, 기술 등이 해당)
  - 추진체계 :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연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
- 2012년을 기준으로 광주지역 문화예술관련 단체 23개소에서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일반인 5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혜인원 546명의 절반이 넘는 아동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2013년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중점 선정방향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으로 정하고 내용적 특성, 대상적 특성, 운영적 특성을 공모내용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음.
-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 지리,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창의적 통합형, 지역사회 환원형 문화예술교육으로 가족 또는 마을 공동체 회복 등 교육수혜자의 삶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형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적 특성에 명시하였음.
-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또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숙인, 실업자, 미혼모, 독거노인, 임산부, 주부, 은퇴자, 직장인, 탈학교 청소년 등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의 발굴을 대상적 특성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이나 생활권 단위 주민시설 등을 연계하거나 문화예술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운영을 운영적 특성에 반영하고 있음.
-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하여 콘텐츠, 단체역량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 사례 나눔 및 전문가

에게 직접 컨설팅을 받는 기획워크숍이 진행됨.

- 기획워크숍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른 질의응답과 2차 심사의 심사지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사항 위주의 내용으로 컨설팅이 진행되는데 이 컨설팅은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사업계획에 대한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함.
- 최종심사에서 조직역량, 적합성, 참여자효과, 커뮤니티효과, 교육방법론, 문화예술적 특징 등을 기준으로 점검.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최대 12개월 동안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행하는데,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무용, 영화, 통합장르 등 다채로운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 2011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교육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대외적 교류를 위한 추가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내 다양한 활동가 간 연구·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콘텐츠 개발, 학습대상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작함.

### 〈네트워크 사업〉

-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초대하여 네트워킹 하는 자리로 2009년부터 ‘새갈래’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음.
- 2011년부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초대해 참여단체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업과 관련된 안내를 해왔으며, 사람과 프로그램이 남는 지원사업을 지향하는 이 네트워크 모임을 통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광역센터가 컨설팅, 모니터링, 새갈래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Top-down’ 방식의 지원체계의 한계는 그 시도 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011년 ‘사소한 새갈래’ 모임에서 지원사업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제안사항, 프로그램진행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34] 2011 지원사업 참여단체 대상 조사<지원사업 실행 시 겪는 어려움과 제안 사항>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모임이나 관계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컨설팅을 계획해 봄</li> <li>- 교수법에 대한 컨설팅, 구체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특히 요즘 어린이의 심리 특성이 궁금함</li> </ul>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요원이 잠깐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혹은 여러 번의 수업 참관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함</li> <li>- 사업운영단체들의 상호교차평가</li> <li>- 인큐베이팅 성격이 강한 모니터링을 원함</li> <li>- 기획서대로 수행하다가 부딪혔을 때 무엇이든 상담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li> <li>- 강사, 보조강사, 학생, 학부모, 향유기관, 동네주민 등 다양한 층의 의견을 들었으면 함</li> </ul>
프로그램 진행 과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수강 대기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생기는 공간의 문제</li> <li>- 30차시 진행에 대한 심적 부담감</li> <li>-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과 같은 작업·생각 나누기를 해야 하는 ‘도입’의 어려움</li> </ul>

- 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광주광역시센터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검증된 문화예술교육 모니터요원을 통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기획자 없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광역센터와 진흥원의 역할분담과 권한이양 등 광역센터 차원의 고충을 토로함.

- 광역센터는 효과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통합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과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동시에 협력사업(지원사업)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네트워크사업, 정보 화사업 등을 해나가야 하는 가운데 광역센터가 자리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단체(인)〉

-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주로 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단체 정보집(전국 문화예술교육 단체정보 모음)에 등록되어있는 광주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총 26개로 대부분의 단체들이지금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인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들임.
-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무용, 영화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통합예술교육 단체 등이 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진흥원 등록단체 이외에 다수 존재함.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광주에 아시아중심도시 사업이 진행됨에 발맞추어 다양한 장르와 성격을 띤 문화예술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이는 주로 사단법인형태의 문화예술단체, 연합 또는 협회형태의 민간단체, 임의교육단체나 연극, 음악, 무용 등 특정장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들인데 단기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많고, 이에 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주문화예술교육단체를 따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사례로 꼽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수는 2012년 23개 단체, 2013년 42개 단체, 2014년에는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를 통해 각각 2개 단체, 19개 단체임.
- 2012년과 2013년에 광주광역센터에서 운영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이름과 프로그램명, 학습대상, 장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음.

- 2012년과 2013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단체를 살펴보면 학습대상이 아동·청소년에 집중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단일 장르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2012년과 2013년에 광주지역에서 실행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학습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통합장르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학습대상 분포의 경우, 2012년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3년에 들어서는 일반인 수혜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가족 단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났음. 이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생활권에 훨씬 밀착해가고 있음 보여주고, 수혜대상층에 대한 지역별 특성, 연령층,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설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으며 2012년 가장 많은 수혜자 비중을 차지한 아동·청소년층은 2013년에도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또한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비중이 비슷한 수준임.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단체(인) 차원의 수혜자 분석과 수혜자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주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장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주로연극, 음악, 무용 등 특정장르 위주의 성격이 강하며, 통합장르의 비율이 2012년 35%, 2013년 36%로 비슷하게 도출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시에는 한 장르 중심으로 또는 두 가지의 장르를 융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음.
- 특정장르 성격을 띤 문화예술전문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프로그램 기획·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 등 프로그램 실행부터 행정적인 절차에 이르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내야 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특정 학습대

상과 장르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이 편중될수록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은 힘들어짐.

- 이밖에 향유기관, 지역문화자원 활용,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요소가 균형 잡히고 고루 분포되었을 때 비로소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 광주문화예술교육인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 127명(2014년)에 대한 신상정보 외에 따로 정리된 내용이 없는 실정이며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된 강사, 전문예술가 등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진흥원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강사 및 전문가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에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이 주는 시사점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단체(인)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출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심사 시 진행되는 기획워크숍이나 모니터링 외에도 운영단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창구의 역할을 광역센터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단체들은 지원사업의 운영에 급급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보다 심화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본질적인 물음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다음 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지나가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함.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광역센터가 지역에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며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인 인력과 프로그램 서비스, 하드웨어인 시설과 교육공간에 대한 지원문제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결국 분배형식의 지원이 아닌 매개의 방식으로 전략적 지원육성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을 엮어내고 매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 ‘광역센터는 지역의 문화인력 네트워크 구성을 돕고, 문화도시 전략 측면의 브랜드 교육사업이나 농촌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인)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 탈장르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다양한 수혜자 층 분석과 개발, 향유기관과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 문화예술교육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지원체계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프로그램 연구와 기획, 개발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지역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활동가들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대한 지원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광주시의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은 기획인력이 부족하여 아카데미 혹은 교육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 역시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지역기반시설의 활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강좌형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시설에서 실행되지만, 종종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개별적이고 한정적으로 이루어짐. 이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 곳곳의 다양한 기반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수혜자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도 작용해야 할 것임.

- 현재 광주지역 내에서 활용되어지는 공간자원이 매우 한정적이란 지적이 있으며 광주시 문화예술유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간자원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이 가능한 공간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내 유휴·폐 공간 현황 조사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생활문화권 조성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함께 작용해야 할 것임.
- 근본적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단년도 회계주의 원칙에 따르는 지원사업형태로 인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이 어려운 현실이며 결과물 중심의 평가에 따라 차년도 지원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되기에 충실하고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수요소로 요구됨.

## 4. 대전광역시의 현황

### 1) 일반 현황<sup>6)</sup>

#### ① 기본 현황

- (인구) 1,523천명(외국인 16천 명 별도, '15.9월 기준)  
\* 전국의 3.0%
- (면적) 540.24km<sup>2</sup>( '13.12월 기준)  
\* 전국의 0.5%
- (행정구역) 5개 자치구 79개 동(법정동 177개)

#### ② 재정 현황

- (예산규모) 총 5조 8,980억 원(市 4조 1,082억, 區 1조 7,898억)

[표8] 대전광역시 예산구조

구분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비율
계	58,980억원	42,450억원	9,509억원	7,021억원	100%
市	41,082억원	26,127억원	8,957억원	5,998억원	69.7%
區	17,898억원	16,323억원	552억원	1,023억원	30.3%

- (재정자립도) 시본청 43.4%, 자치구 19.7%(2015년도 본 예산 기준)

6) 대전광역시,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

### ③ 지역 경제

- (산업구조) 서비스업·기타 81.7%, 광·제조업 18.2%, 농림어업 0.1%
- (지역내 총생산) 32.3조원( '13년 기준) \* 전국의 2.3%
  - ※ 1인당 GRDP : 2,084만원 \* 전국평균(2,842만원)의 73%
- (경제활동인구) 808천명(60%)
  - \* 15세 이상 1,294천명(기준 : '15.9.30)

## 2) 역사<sup>7)</sup>

- 근대도시로서의 대전 :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
- 근대 이전의 대전 : 지역의 작은 소읍
  - 대전 지역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 이전까지 대전 지역은 한반도의 주요도시가 아니었음.
  - 인근 지역에서는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시가 중심 역할을 했으며 조선시대 까지 지방 감영이 설치되었던 충청도의 수부였고, 대전은 소읍(小邑)에 불과했음.
- 개항기 이후의 급성장
  - 하지만 1905년, 일제에 의하여 대전지역을 관통하는 경부선철도가 가설되며 대전역이 신설되었고, 이를 통하여 대전은 향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 하게 됨.
  - 1913년에는 경부선에 이어 호남선 철도가 새로이 놓이고 급기야 1932년에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설치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됨. 광역행정기관 소재, 편리한 교통·환경 등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1913년 당시 약 6,000여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1932년 34,000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함.

---

7)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참조

○ 한국전쟁의 참화와 재건

- 해방 후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도시는 대부분 파괴되는 참화를 겪음.
- 휴전 이후 대전에 정착한 피난민들과,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입지 조건 덕에 각 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도시는 급속히 재건이 이루어짐.
- 1970년대에는 철도에 이어 대전을 분기로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라지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신설되며 대한민국 교통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과학 중심도시로서 대전

- 대덕연구단지 조성 :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1973년에는 유성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전문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에 설립계획이 추진되었고, 1978년 본격적으로 연구기관들이 입주하게 됨.
  - 1984년 설치된 한국과학기술대학(KIT)이 1989년 통합 및 이전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로 재편되었고, 1993년에는 과학을 주제로 한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며 대전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됨.
  - 1997년에는 정부대전청사가 완공되며 14곳의 부처, 6,600명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행정도시로 발돋움하였으며 부처 외 각종 산하 정부기관들도 대전에 설치되었음.
- 이런 과정을 통해 대전은 교통, 과학, 행정이라는 특화점을 앞세운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확정되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 3) 입지<sup>8)</sup>

- 수리적 위치 : 북위 36° 21' 03" 동경 127° 23' 06" 로 휴전선 이남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와 충청북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동단 : 동경 127° 33' 21" (동구 주촌동)
  - 서단 : 동경 127° 14' 54" (유성구 송정동)
  - 남단 : 북위 36° 10' 50" (서구 장안동)
  - 북단 : 북위 36° 29' 47" (유성구 금탄동)
- 지리적 위치
  - 대전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남의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충북의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과 접해있고 수도 서울까지는 167.3km, 부산까지는 238.2km, 광주까지는 169km의 거리에 있는 남한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도.
  - 경부·호남·대진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가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분기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어 대전은 더욱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8)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참조

#### 4) 인구 및 지역구성<sup>9)</sup>

##### ■ 대전의 인구분포

[표9] 대전지역의 인구분포

행정기관	인구수(명)		
	계	남	여
합 계	1,525,195	763,038	762,157
동구	242,211	122,525	119,686
중구	258,023	128,329	129,694
서구	494,277	243,524	250,753
유성구	331,719	167,441	164,278
대덕구	198,965	101,219	97,746

##### ■ 자치구별 특성

###### ○ 동구

- 교통편의성을 이점으로 대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지역이고 현재에도 대전C 및 대전복합버스터미널(용전동), 대전역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음.
- 도시의 역사가 오래되었기에 시설의 노후, 교통 불편 등 전반적으로 도심지가 낙후하여 정주민구는 적음.

###### ○ 서구

- 대전광역시청과 정부대전청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현 시점에서 대전 시내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 중 한곳인 갤러리아 타임월드(둔산동)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
-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임.

9)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참조

○ 중구

- 대전 원도심의 변화가인 으느정이거리(은행동)가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호남 선 서대전역이 위치하고 있음.
-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유동인구 및 정주민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유성구

- 대전광역시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음.
- 지역의 대표적인 신흥 주택지인 스마트시티 등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서남 부권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시내 인구유입률 1위임.

○ 대덕구

- 대전광역시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탄진C, 회덕분기점이 있어 광역 교통이 편리함.
-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상으로 인해 정주하기에는 불편한 환경을 지니 고 있어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내 인구 유출률 또 한 1위임.

## 5) 경제<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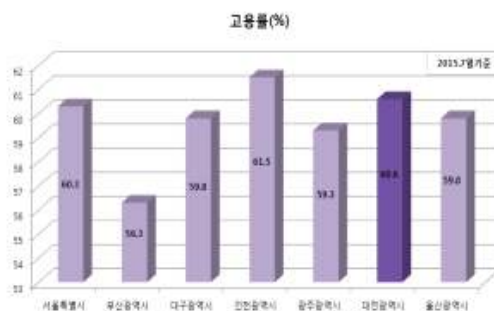
### ■ 기본 현황

- 연간 1인당 근로소득 31,400,000원(2013년 기준), 전국 7대 광역시 중 3위.
- 2015년 7월 기준 고용률 60.6%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2위.

[그림1] 대전의 1인당 근로소득



[그림2] 대전의 고용률



출처 : 대전의 최근 경제활동 모습, 대전광역시 (2015년 기준)

### ■ 특성

#### ○ 높은 소득수준과 고용률

- 대덕연구단지, 정부대전청사 등 전문직, 과학기술직, 국가행정직 인구 비중이 높아 1인당 근로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고, 고용률 또한 7대 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임.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고용 상태가 안정된 편이기에 7대 광역시, 타 시도에 비해 삶의 질은 비교적 높은 편임.

#### ○ 높은 삶의 질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음

- 소득활동 외, 여가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창출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타 시 도 보다 높은 편임.
- 이에 문화예술향유활동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대전시 향후 정

10)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참조

책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 주요정책

### ■ 시정 비전 및 방향

- 시정 비전
  -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 시정방향
  -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
- 시정기조 : 시민 중심의 경청과 통합

### ■ 민선 6기 대전광역시의 주요 공약 사업<sup>11)</sup>

- 주요 공약

[표10] 민선6기 대전광역시 주요 공약 사업

목 표	주요 추진 사업
1)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직속,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시장, 시민의 공동대표체제로 운영)</li> <li>- 명예시장 제도 운영 및 현장시장실 운영</li> <li>-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운영</li> <li>-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li> <li>- 정책실명제 도입</li> <li>-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비고 시 고위직 승진할당제 실시)</li> </ul>

11) 김홍섭, “민선6기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당선자 공약 평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14.

목 표	주요 추진 사업
2) 안녕하고 안전한 대전 / 재난 범죄추방으로 안전한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성 위험 노출로부터 안전한 대전</li> <li>-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li> <li>- 대덕구 장동 탄약창 이전</li> <li>- 어깨동무 프로젝트 / 민관협력 구현, 충청권 광역안전관리망 체제 가동</li> <li>- 맞춤형 재난예방 교육</li> <li>- 재난위험지구 지도 제작</li> <li>- 시민생활안전지수 개발 및 공포</li> <li>- 안전관리조직 및 인력배치 및 예산확대 / 시장 직속 안전관리정책관실 신설</li> <li>- 3길(안시길, 편안길, 노색길) 프로젝트 추진</li> </ul>
3)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을 위한 범 시민협의체 구성</li> <li>-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li> <li>- 고용창출 금융제도 실시</li> <li>-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li> <li>- 청년희망 일자리 프로젝트</li> <li>- 맘편한 여성일자리 창출</li> <li>-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li> <li>-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li> </ul>
4) 강소(벤처)기업 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소기업 진원단 설치 운영</li> <li>- 자립형 강소(벤처)기업 적극 육성 및 유치</li> <li>- 대전형 히든챔피언 발굴 육성</li> <li>- 유망중소기업 육성</li> <li>- 강소기업 창업지원자금 대출 및 강소기업인 복지지원</li> </ul>
5) 대전형 첨단산업으로 경제규모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산업단지 조성</li> <li>- 대전형 기업유치 확대</li> <li>- 마이스산업 육성</li> <li>- 팹랩(FAB LAB) 공간 마련</li> <li>- 국제학술대회 유치</li> <li>- 산업경제예산 2배 늘리기</li> <li>- 산업협력특보 운영</li> </ul>

목 표	주요 추진 사업
6) 대전시립병원 설립	- 대전시립병원 설립
7) 함께 누리는 복지	- 대전사회복지 기준선 마련 - 생활임금제도 도입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8) 성평등 5.0 여성친화 도시 만들기	- 대전성평등조례 제정 - 여성부시장 임용 및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 대전여성가족재단 설립 - 성 주류화 정책 적극적 실행
9) 신나는 육아 행복한 아이	- 보육의 공공성 확대 / 공공형 방식 -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 - 초록팬 학습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의 학습지원 - 공동육아 마더센터 설치 - 소아중증장애인 건강권 보장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설치
10)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 효문화조례 제정 -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치 - 홀로노인 안부서비스 등 안전망 구축 - 노노케어 서비스 및 안심카페 운영 - 노인 공동가정생활(그룹홈) - 노인치매예방 검진 실시
11) 사람은 사람답게 인권 보호	- 장애인 기본권 보호 / 장애인 권리장전 제정 - 장애인 일감(일터) 지원 -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여성장애인 전용 지정병원 운영 - 청소년 노동권 보호 / 청소년 알바 모범업소 인 증제 도입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 감정노동자 권익향상위원회 설치 등

목 표	주요 추진 사업
12)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재개발 방식의 전환 / 3대 원칙 제시</li> <li>- 도심재생추진본부 설치</li> <li>-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li> <li>- 테마 전시관, 거리 조성</li> <li>- 에디슨 전시관 등 유치 추진</li> <li>- 자립형 소규모 주거정비 / 우리동네 프로젝트</li> <li>- 용전근린공원 조성</li> </ul>
13) 과학문화 교육이 어우 러지는 문화예술 특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문화예술 특구 지정 운영</li> <li>-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마련</li> <li>- 작은과학문화도서관 설치</li> <li>- 프리마켓 육성 지원</li> <li>- 전통문화원 설립</li> </ul>
1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살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마트, SSM 인허가 규제 확대</li> <li>- 전통시장 장보기 헬퍼 서비스 및 도우미제도 도입</li> <li>-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청년창업 전초기지로 활용</li> <li>- 시장을 통한 시민경제학교 운영</li> <li>-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만들기</li> <li>- 전통시장 맛집 발굴 브랜드화</li> </ul>
15) 소통통합하는 도시철도 ‘하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착공</li> <li>- 노선에 대한 시민합의로 노면철 추진</li> </ul>
16) 사람을 생각하는 안전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한 정류장 만들기 / 냉난방대책, 환승시스템 등</li> <li>- 편리한 환승환경(통합교통구역) 만들기</li> <li>-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li> <li>- 버스 배차간격 단축 / 15분→12분</li> <li>- 2층 버스 및 캐릭터 버스 운행</li> <li>- 대중교통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 휴게시설 등</li> <li>-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우 50% 유치</li> <li>- 대전교통연수원 및 대중교통연구센터 설치</li> </ul>

목 표	주요 추진 사업
17)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친화적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li> <li>- 주민건강을 위한 동네길 조성</li> <li>-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시설개방</li> <li>-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동호회 육성</li> <li>- 주민근접성 고려 작은체육관 조성</li> </ul>
18) 생태환경보전으로 녹색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질환센터 설치</li> <li>-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li> <li>- 신재생 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 햇빛발전소 착공 등</li> <li>-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li> </ul>
19) 3대 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축제에 대한 재검토, 폐지 및 신규축제 억제</li> <li>- 대전 3대축제 선정 및 기본원칙 제시</li> <li>- 대전의 3대 대표축제 브랜드화</li> </ul>
20)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조성</li> <li>- 사회적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확대 및 지속유지</li> <li>- 풀벗도시농부 육성</li> <li>- 함께쓰는 공유네트워크 조성</li> <li>- 대전NGO센터 설치</li> </ul>
21) 과학비즈니스벨트, 엑스포과학공원 시민품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운영</li> <li>- 사이언스센터 계획 기본기능 추진</li> <li>- 기초과학연구원 시민개방 요구</li> <li>- 대덕특구를 시민과학공원화</li> <li>-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위한 체험 시민과학공원</li> </ul>

○ 분석

- 대체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 중심의 의제로 짜여짐.
-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안정,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를 피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안전을 중심으로 한 주거의 안정성을 주요한 화두로 삼고 있으며 이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연결된 것으로 판단됨.
-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대를 중시하고 있음.
- 대전의 특성인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피하고 있음.
- 친환경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통한 생활 환경의 개선과 녹색에너지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대를 동시에 목표하고 있음.
-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과학, 교육 등 대전이 갖고 있는 지역 강점과 연계된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3대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화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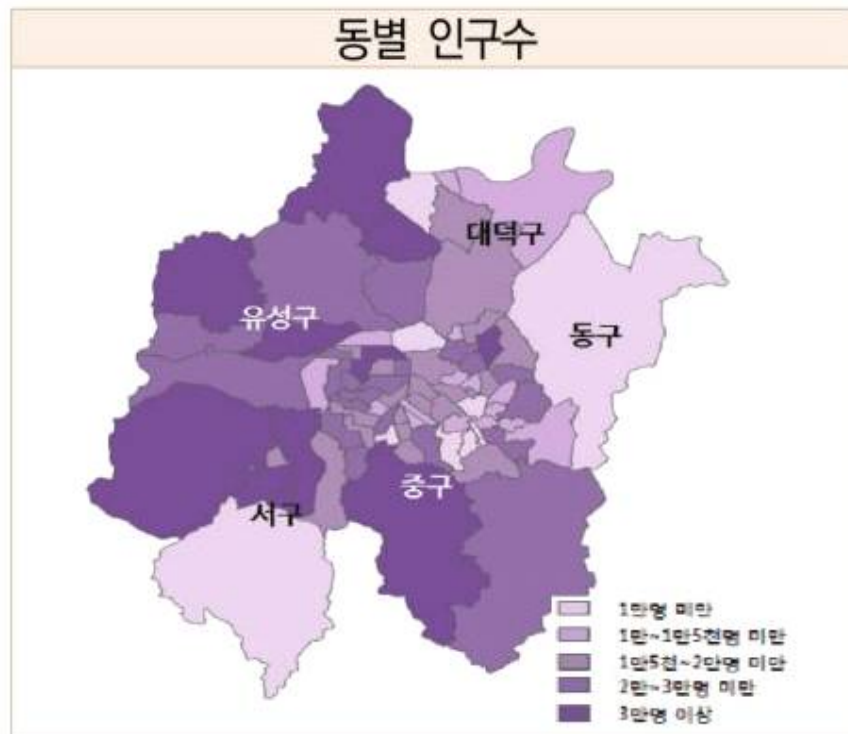
## 7) 대전의 주요 사회지표<sup>12)</sup>

### ① 인구

#### ○ 대전시 인구성장률 증가세는 다소 둔화

- 2014년 대전시 총 인구는 154만 7,467명이며 2010년 성장률(1.3%)을 최고로 2013년까지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01% 감소
- 유성구(4.37%)만 인구성장률 증가
- 2014년 출생아수는 1만 3,962명으로, 전년보다 0.97% 감소

[그림3] 대전시 동별 인구 분포



- 전통적인 도심인 중구의 인구가 많으며 유성구와 대덕구의 인구수가 많은 편임. 동구와 서구의 거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12)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참조

○ 지속적인 노령화 추세

- 2014년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 7.3명으로 전국(5.8명)보다 높고, 노인 부양비는 13.8%로 전국(17.4%)보다 낮았으며, 노인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시 가구의 48.5%가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 대전시 노령화지수는 67.0%로 전국(89.9%)보다 22.9% 낮았으나 지난해 대비 5.2% 증가하여 매년 증가속도가 빨라짐.

② 가족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거 가족의 비율이 8.2%로 지난 2013년 대비 2.2% 하락
-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가구가 절반 이상(54.0%)이며, 1년~2년 미만 (25.6%) 단기 분거가 가장 많음.

[그림4] 대전의 분거가족 이유

분거가족 - 분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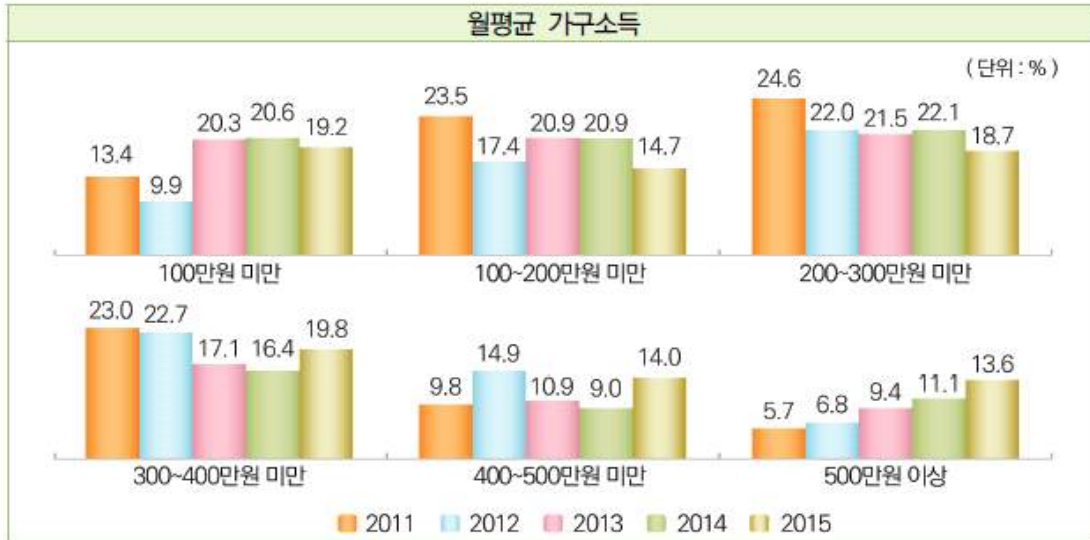
- 2010년 대전의 다문화가구는 6,839가구로 총 가구의 1.3%를 차지

### ③ 소득 및 소비

#### ○ 사무직, 중산층 중심의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

- 지난 2014년 대비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전반적으로 증가 하였고, 특히 400~500만원 미만(5.0%)의 증가폭이 가장 컸음.

[그림5] 대전의 월평균 가구소득



- 본인소득에 불만족(25.9%)하는 시민이 많으나, 지난 2014년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10.4%)함.

[그림6] 대전 가구의 소득만족도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지난 2013년 대비 100~200만원 미만은 (7.7%)은 감소한 반면 200~400만원 미만(4.3%) 소비하는 가구는 증가하고 있음.
-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25.9%)이 높으나, 지난 2014년 대비 불만족 비율은 5.2% 감소함.
- 대전 10가구 중 4가구(41.4%)는 부채가 있고,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임차 및 구입(51.6%)이 주된 이유임, 부채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비율(31.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7] 대전의 가계 부채 현황



#### ④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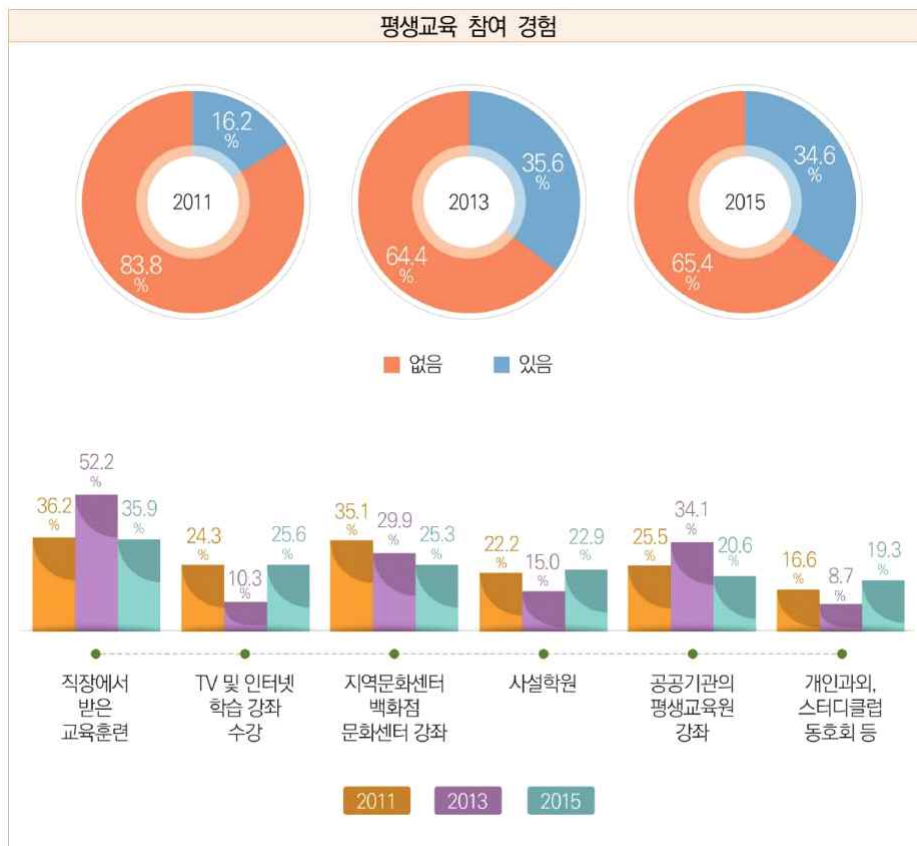
-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으며 지역 내 일자리 선호가 높은 편
  - 만 15세 이상 대전시민의 54.6%가 직업이 있으며, 그 중 사무종사자(38.8%) 비율이 가장 높음. 지난 2014년 대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소폭(0.4%) 감소하였고, 특히 사무 종사자는 증가(19.3%)한 반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2.1%가 감소함.
  - 직업이 있는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임금/봉급 근로자(86.4%)이며, 민간 기업(85.3%)에서 근무하고 있음.
  - 1개월간 직장이 없는 대전시민의 15.1%가 구직활동을 했으며, 그 중 85.9%가 대전지역 내 일자리만 구하고 있어, 대전지역 내 일자리 선호가 두드러짐.
  - 구직 시 고려요인으로 구직자 10명 중 3명(27.1%)이 '보수는 낮더라도 업무시간이 짧은 일'을 생각하고 있음. 이는 2013 대비 업무시간이 짧은 일의 선호는 소폭(9.8%) 감소한 반면, 고용이 안정된 일은 소폭(3.9%) 증가함.

#### ⑤ 교육

- 교육환경의 꾸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
  - 2014년 대전시 학교 수는 전년 대비 6개 증가한 569개인 반면, 학생 수는 2.9% 감소한 236,285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7명으로 전년 대비 0.7(4.5%)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은 2009년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음.
  - 대전 시민 10명 중 4명은(45%)은 거주지역의 교육환경에 만족하며, 2013년 큰 폭으로 증가(12.8%)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대전 시민 4명 중 3명(74.8%)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교육기회를 충족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2013년 대비 '충족' 한다는 의견이 증가(6.8%)하였음.

- 평생교육의 경험이 많은 편이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
  - 대전시민의 34.6%가 평생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고, 그 중 직장에서 교육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음. 지난 2013년 대비 참여 경험은 1.05% 감소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직장에서 경험한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16.3%)한 반면, TV나 인터넷 학습 강좌를 통한 경험은 빠르게 증가함.(15.3%)
  - 대전시민은 취미·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 평생교육을 선호(1+2순위 54.2%, 1순위 37.4%)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없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22.3%)한 반면, 전반적으로 모든 강좌가 증가한 가운데, 어학 관련 교육(13.4%) 비율의 증가 폭이 두드러짐.

[그림8] 대전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경험



## ⑥ 주거 및 교통

###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

- 대전시의 4가구 중 3가구(76.6%)는 현재 거주하는 곳 이전에 '대전 지역'에 살았고 그 중 서구(21.6%), 동구(18.4%), 중구(16.5%)에 많이 거주함.
- 향후 거주 희망 지역은 현재 거주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서구와 중구, 대덕구 거주자가 현재보다 줄어듦 것으로 예상됨.
- 이전 거주지의 주거형태는 아파트(37.1%)와 단독주택(33.4%)의 비율이 높고, 현재 거주지는 단독주택이 줄어듦 반면(16.25퍼), 아파트는 늘었으며(14.5%),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는 증가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감소됨.
- 대전시 10가구 중 3가구(30.7%)는 이사 의향이 있으며 이중 24.0%는 대전 지역을 희망하고 있고, 대전 외 충청권 지역을 희망하는 가구(4.3%)의 76.8%가 세종시를 선호함. 2013년 대비 이사 의향은 소폭 감소함.
- 주거환경에 대한 대전시민의 만족도는 10명 중 6명(60.9%)이 만족하는 반면 불만족은 5.1%임. 2013년 대비 만족 비율이 소폭(6.0%) 감소함.

### ○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이 양호한 편임

- 대전시민의 10명 중 7명 정도(71.0%)는 통근 및 통학을 하고 있음.
-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3.32분이고 62.8%가 10~30분 미만 소요됨.
- 대전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도보, 승용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내버스는 소폭(3.5%) 감소한 반면, 지하철은 소폭(4.4%)상 승함.
- 대전 시민 10명 중 5명(52.2%)은 버스이용에 만족, 지하철은 32.7% 택시는 30.0%가 만족함.

## ⑦ 과학기술

-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성과도 꾸준히 창출하고 있음.
  - 2014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은 1,611개로 전년 대비 36개(2.3%)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대전시의 2014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특허출원 건수는 15만 8,353건으로 전년 대비 18,594건(13.3%) 증가함. 국내 특허출원은 14,010건, 해외 특허출원은 4,584건이 각각 증가함.

[그림9] 대전의 연구기관 현황



[그림10] 대전의 지식재산권 증가현황



## ⑧ 사회복지

### ○ 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음

- 2014년 대전시의 보육 아동 수는 4만 6859명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시설 수는 1,698개로 전년 대비 1.1% 증가함.
- 자녀의 보육시설 선택 시 ‘보육시설의 교육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43.2%(1순위 26.1%)로 가장 높았고, 2013년 대비 ‘주위 평판’ 과 ‘운영 시간’을 고려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26.2%가 ‘보육(교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임. 2013년 대비 ‘보육(교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는 감소함.

### ○ 노년층을 중심으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 세대의 고충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사회적 소외감이 뒤를 이었음. 특히 사회적 소외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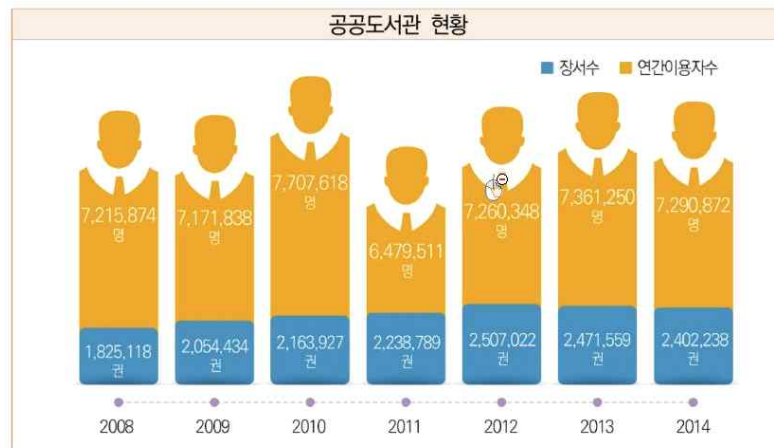
대비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는 큰 폭(23.0%)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문화 예술축제 활성화(16.2%)는 큰 폭으로 증가함.

- 대전시민의 45.7%가 노후에 ‘젊어서 못한 취미활동을 하며’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2014년 대비 ‘자아개발 활동’ 이라는 응답의 증가가 두드러짐.(8.9%증가)

## ⑨ 문화 여건

- 장서량 등 도서관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정체되고 있음
  - 2014년 대전시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수는 240만 2,238권이며, 전년 대비 69,321권(2.8%) 감소함.
  - 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자수는 1만 9,975명으로 전년 대비 193명(1.0%) 감소함.

[그림11] 대전의 공공도서관 현황



- 영화 상영 스크린 수는 확대되었고 멀티플렉스 중심임
  - 2014년 대전시 영화관은 총 9개소로 2000년 14개소 대비 5개소가 감소하였으나 멀티플렉스화를 통해 스크린은 총 61개로 2000년(26개) 대비 35개 증가함.
  - 2013년 대비 스크린 수 변화는 없었으나, 좌석 수는 66석 증가함.

[그림12] 대전의 영화관 및 스크린 수 변화추이



## 5.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교육정책

### 1)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 ① 개요

- 대전 역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 대전시에서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대전예술의전당 산하 공연기획과에서도 공연예술관련 문화예술교육 업무가 존재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지역에서의 실질적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2007년 처음 광역센터들이 선정될 당시에는 건양대학교가 창의력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센터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되었음. 이는 대전문화재단의 설립이 200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임.
-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듬해인 2010년 5월부터 대전문화재단이 광역센터의 업무를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음.

#### ②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 조직 및 주요 업무

- 2010년부터 대전문화재단이 광역센터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삶의 일상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기관, 단체,

기반시설, 학교간의 원활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보급을 통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하여 문화복지 도시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업무로는 학교예술강사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 교육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아티언스 캠프, 문화 예술교육 커뮤니티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대전문화예술교육 통합 홍보, 문예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연수 등이 있음.

[그림13]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도



■ 추진 실적(2014년)<sup>13)</sup>

- 2014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특성화,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창의력을 키우는 감성 배움터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

○ 학교예술강사파견 사업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함양 및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표11] 대전 학교예술강사파견사업 성과

구 분	'13년도	'14년도	증 감
지원예산	890,306천원	961,460천원	71,154천원
지원시수	20,365시수	21,811시수	1,446시수
학교	136개교	144개교	8개교
강사	100명	110명	10명
인원	44,800여명	46,000여명	1,200여명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 문화적·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화격차 해소

[표12] 대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성과

구 분	'13년도	'14년도	증 감
지원예산	458,000천원	458,000천원	-
운영단체	29 단체	19 단체	△10 단체
교육인원	24,900여명	18,640여명	△6,260여명

13) 2015 대전교육지원센터 사업현황 자료 발췌 요약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 아동청소년 및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토요 프로그램 활성화

[표13] 대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성과

구 분	'13년도	'14년도	증 감
지원예산	461,000천원	640,000천원	179,000천원
운영기관	20 기관	33 기관	13 기관
교육인원	29,070여명	18,000여명	△11,070여명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2개구)

[표14]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성과

구 분	일 정	장 소	대 상
대덕구	'14.4월~12월 매주 월, 금 / 18:30~20:30	법동지역 아동센터 등	초·중학생 54명
동구	'14.5월~12월 매주 화, 목 / 18:00~20:00	굿프렌드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29명

○ 아티언스 캠프/ 문예아카데미

- 대전시민의 융복합 마인드 창출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표15] 대전 아티언스 캠프/ 문예아카데미 성과

구 분	'13년도	'14년도
아티언스 캠프	2박 3일(3기)/아동·청소년 170명	주 3회, 총 15회/중·고등학생 총 30명
문예아카데미	20강좌 운영 / 780명 참여	23강좌 운영/840명 참여

○ 네트워크 사업

-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식확산 및 현장 스킨십 강화
- 예술강사지원사업 교육현장 방문 점검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교육현장 모니터링 실시

○ 기반 및 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체 운영기반 강화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컨설팅 워크숍 개최
- 공공기관 행정가 대상 연수운영

○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및 위기 청소년 사회성 함양을 위한 MOU 체결

○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서비스 강화

- 대전문화예술 서포터즈 운영
-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장안내도 제작

## 2)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현황(2015년 현재)

### ■ 2015년 사업 목표

-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열린 문화예술교육 환경 및 문화복지 도시 조성의 초석 마련

### ■ 2015년 사업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총 14개 (중앙연계사업 6개 / 자체기획사업 8개)

[표16] 대전광역센터 2015년 주요 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중앙 연계 사업	학교예술 강사지원	공교육 연계를 통한 8개 분야 예술강사 파견	국·시비 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8개월 이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시비 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시비 별도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대상 무상 오케 스트라 교육프로그램 제공	시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및 지역문화활성화 도모를 위한 과정 (강좌, 인턴십, 워크숍)	국비, 자부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문화 예술경연대회, 축제 등 운영	국비 (인센티브)
자체 기획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발굴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비
	아티언스 캠프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및 창의 융복합마인드 창출을 위한 캠프 운영	국비
	문예아카데미	예술 중심의 인문학 강좌 운영	국비
	대전문화예술 서포터즈	건전한 청년 문화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교육 현장 정보 제공을 위한 서포터즈단	국비

		운영	
	대전 ARTe 정보화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정보서비스 지원	국비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정책 수립 및 전략 도출	국비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토론의 장 마련	국비
	가족동행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 탈선 예방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국비

-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술 꽃 씨앗학교>도 2, 3, 5기. 총 3기에 걸쳐 4개교가 운영되었으며, 시내 소재 각 미술관, 박물관, 예술창작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세미나, 오픈렉처 등의 산별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존재함.

■ 2015년 사업 예산

- 총예산 : 3,754,200,000원
- \* 중앙연계사업 : 3,604,200,000 원
- \* 자체기획사업 : 150,000,000 원

[표17] 대전광역센터 2015년 예산 편성(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 산
중앙 연계 사업	학교예술강사지원	2,241,200,00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458,000,000
	꿈다락토요문화학교	640,000,000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95,000,00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90,000,000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0,000,000
	소계	3,604,200,000(96%)
자체 기획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10,000,000
	아티언스 캠프	30,000,000
	문예아카데미	25,000,000
	대전문화예술 서포터즈	22,000,000
	대전 ARTe 정보화	18,000,000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20,000,000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5,000,000
	가족동행 프로젝트	20,000,000
	소계	150,000,000(4%)

## ■ 총괄 분석

- 예산 편성 상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연계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96%) 자체기획사업은 사업 종수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산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음.
- 중앙연계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타 지역 광역센터도 비슷한 상황이며 향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기획 사업의 비중도 증가할 것임.
- 중앙연계 사업의 경우도 광역센터에서 단순히 사업을 내려 받아 진행하는 형태를 탈피하여 예산과 정책적 지원은 중앙과 연계하되 기본적인 사업목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 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3) 정책사업별 상세현황

#### 〈중앙 연계 사업〉

##### ① 학교예술강사 사업

###### ■ 개요

- 사업목적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 지원교과 :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등
- 지원분야 : 총 8개 분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지원내용 : 학교 예술강사 선발·관리·운영 예술강사 배치, 교육기자재  
무상지원

###### ■ 사업 내용

- 공교육과 연계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초·중·고등학교에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유입되어 있으며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로 국악을 제외한 7개 분야는 “대전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가, 국악 분야는 “대전예총” 이 모집부터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음.
- 참여하는 학교별로 따져보면 2014년 총 341개 과정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개설되어 있음. 2015년에는 대전지역 2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387개 과정(48,634시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6개 과정이 확대된 것임.

[표18] 대전시 학교예술강사 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	무용	사진	연극	영화	계	비율
초등	1,131	20,552	214	1,100	8,548	248	2,445	64	34,302	70.46%
중등	240	4,844	434	806	1,518	68	550	358	8,818	18.1%
고등	164	1,005	342	638	—	251	1,134	500	4,034	8.3%
특수 대안	100	474	—	—	590	—	368	—	1,532	3.15%
계	1,635	26,875	990	2,544	10,656	567	4,497	922	48,686	—
비율	3.36%	55.2%	2.0%	5.2%	21.9%	1.16%	9.24%	1.9%	100%	—

- 시수별로 분석했을 때 2014년 결과 국악이 55.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시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13년 결과와 유사하며 국악 분야가 예술강사 파견 사업을 먼저 시작했으며 특히 2011년 중고등학교 기본교과로 국악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됨.

[표19] 2013년 대전 학교예술강사사업 장르별 분포

구분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	무용	사진	연극	영화	계
시수	1,520	25,618	886	2,304	10,307	288	4,229	936	46,068
비율	3.30%	55.58%	1.92%	5.00%	22.36%	0.62%	9.18%	2.03%	100%

- 이외에는 연극과 무용이 학교의 기본교과목으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은 시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교육과정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70.46%)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입시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2013년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음.

[표20] 2013년 대전 학교예술강사사업 교육과정별 분포

대상	강좌 수(개)	비율(%)
초등	253	69.89
중등	60	16.57
고등	36	9.94
대안/특수학교	13	3.59
합계	362	100

- 또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현황은 총 193명이었는데 이중 177명이 기존강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임.

[표21]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현황

구분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	무용	사진	연극	영화	계	비율
기존	6	73	4	24	43	3	23	1	177	91.7%
신규	1	8	1	2	1		2	1	16	8.3%
계	7	81	5	26	44	3	25	2	193	100%

## ■ 사업 분석

- 예산의 규모와 파견 인력(예술강사), 배치 학교 수 등 가장 규모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음.
- 사업초기부터 최근까지 진흥원이 추진해오다가 2010년 10월, 2011년 학교 선정 및 신규강사 선발, 학교 배치, 2011년 예술강사 계약과 활동관리를지 원센터에 이관함.
-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초창기부터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은 학교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공간과의 연계 속에 예술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효율적이었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까지도 학교예술강사사업에 있어서 광역센터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특히 실질적인 기획 권한의 이관 없이 행정업무만이 광역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불협화음이 적지 않음.

[표22]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중앙-광역센터 간 업무분장

중앙	광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li> <li>- 학교선정 기준 수립</li> <li>- 강사선발 기준 수립</li> <li>- 심사위원 풀 제공</li> <li>- 강사선발 절차 수립</li> <li>- 관리, 감독 (월별보고서 검토 등)</li> </ul>	(지침에 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선정 협력</li> <li>- 강사선발 실무 진행</li> <li>- 강사배치 실무 진행</li> <li>- 강사계약</li> <li>- 강사활동관리</li> <li>- 월별보고서제출</li> </ul>

- 해당 지역의 상황이나 광역센터의 비전에 맞는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자율적 추진이 힘든 상황에서 중앙에서 하달하는 지침에 맞춘 행정업무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자생적 역량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런 문제점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 지역특성화 사업과 같은 여타 중앙연계사업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 ■ 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문화예술 소양제고 및 전문 예술 기관·단체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업기간 : 3월~12월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기관 및 단체
-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
- 사업내용 :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 사업 내용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 수업제’ 등과 연계하여 전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 문화예술기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 청소년, 가족이 예술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됨.
- 꿈다락 프로그램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2015년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사업이 추진됨.

[표23] 2015 꿈다락 프로그램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민간보조 (진흥원)	-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 건축문화 프로그램
	- 가족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 주말 문화여행 프로그램
	-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 콘텐츠 발굴/확산 프로그램
	-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
	- 아리랑 프로그램
	- 안산지역 특별 프로그램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 고3수험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프로그램

- 이 중 대전지역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총 49개로 31개 지역연계프로그램들이 광역센터를 통해 진행되었고 그 밖에 건축문화 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표24] 2015 대전 지역 꿈다락 사업 진행 현황

(단위 : 개)

사업 분류	프로그램 수
지역연계 프로그램	30
건축문화 프로그램	6
가족오케스트라, 합창 프로그램	1
주말여행프로그램	4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7
<b>총계</b>	<b>48</b>

- 대전광역시에서 공모를 통해 진행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아우름 프로그램과 차오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함.<sup>14)</sup>
- 아우름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초 이해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전반의 기초 소양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예술치유감상 프로그램을 공모

[그림14] 2015 대전 꿈다락 아우름 프로그램 개요



- 차오름 프로그램은 주제별, 장르별로 특성화된 종합 심화교육을 통해 사회와 삶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보여주는 체계적·집중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그림15] 2015 대전 꿈다락 차오름 프로그램 개요

14)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djarte.or.kr>) 참조



## ■ 사업 분석

- 지역연계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아우름과 차오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이는 과거 진흥원에서 정책 설계 초창기에 사용했던 분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것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아우름 사업과 차오름 사업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
- 서울센터의 경우 공모유형을 일반공모형, 문화거점형, New-Project(NP)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를 진행함.<sup>15)</sup>

15)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sac.or.kr>) 참조

[표25] 서울센터의 꿈다락 프로그램 유형

공모 유형	A	B	C
	일반공모형	문화거점형	NP(New-Project)형
신청 자격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전문 및 신진단체(기관)	-자치구 문화재단, 문예회관, 마을예술창작소, 문화기반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창작공간, 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거점기관  -지자체 또는 자치구 등의 지원이나 운영관리를 받는 신하기관(단, 직접관리기관은 제외)  ※ 신청주체는 기관(시설)이며, 단체는 신청불가	-단체 구성원 중 일부가 예술가, 학교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사회예술강사 로 구성된 단체  -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일자가 공모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사업 내용	-여타 주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령기 아동·청소년 및 가족(조부모/부모/형제자매),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등 교육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생활권에 근접한 문화공간 및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단체 구성원 중 일부가 예술가, 학교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사회예술강사 로 구성되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열린> 프로젝트 기획운영  -P란? : people(사람), program(프로그램), potential(가능성), passion(열정) 등 새로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

- 경기광역센터의 경우도 공모유형을 꿈다락 놀이터(일반공모)와 꿈다락 실험실로 지역공모형태를 진행했으며 보다 명확하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공모 유형의 구분을 제시했음.

[표26] 경기센터의 꿈다락 프로그램 유형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일반공모	꿈다락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신진·중진·전문 단체</li> <li>- 경기지역 내 적합한 교육공간을 확보한 문화예술(교육) 단체 와 기관</li> <li>- 사각 지역 우대(구리,동두천,양주,여주,의왕,이천,평택,포천,하남,가평 총10곳)</li> <li>※ 사각지역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지원사업이 드물었던 지역</li> <li>※ 수도권 소재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인 경우 사각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li> </ul>
기획공모	꿈다락 실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일반공모(꿈다락 놀이터) 지원대상 조건과 동일</li> <li>- 문화예술(교육) 관련 생활문화공동체 참여 우대</li> <li>※ 생활문화공동체 : 이웃, 마을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활문화(의·식·주 및 교육·의료·예술 등)를 주목하고 예술을 접목해 다름에 대한 공감과 소통역량을 키워가는 공동체</li> <li>〈예시〉 ***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동아리 등</li> </ul>

- 이런 점에서 대전 지역의 꿈다락사업 역시 지역연계 공모 등에서 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③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 개요

- 사업목표 :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 및 공동체 형성  
계기 마련
- 사업기간 : 2014년 1월~12월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기관, 시설
- 향유대상 : 사회적, 문화적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 또는 모임
- 사업내용 : 8개월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교육대상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27] 2015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구분	연번	단체명	사업명	프로 그램 (개수)	참여 대상 (명)
소계	기획 2, 일반 18		20개 사업	28	일반시민 등 610명
기획	1	강령탈춤전승회	스토리텔링(StoryTelling)	3	봉명동 지역 노인 (20) 희망마을도서관 가족(15) 구암지역 아동센터(20)
	2	(주)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문화로 창조하는 원도심 커뮤니티 "문화원 공동체"	1	중촌동 및 중구자활 센터 노인(40)
일반	3	뮤직 팩토리	세계민속악기 어울링 어울링	1	주안지역아동센터 아동(20)
	4	미술공감 편편아트	대화동 예술을 입다 문화나루터	2	대화지역아동(20) 코아유성 상인회 상인(30)
	5	대덕문화원	무지니 마을의 미생(美生)	1	대덕구 청자마을 지역주민(25)
	6	창작집단 유유자적 인 대전	쥬크박스뮤지컬/ 안티스트레스 컬러링프로젝트 “빛답다”	1	도안지역주부(20명)

7	마당극패 우금치	얼카덩이아 얼카덩어리! 내인생의 마당극 햇살 가득한 내 마음, 연극으로 풀어보자	2	용문동자활센터 기초생활수급자(20) 정신장애인 및 대전 평화여성회원(38)
8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	풍물소리 둥둥둥	1	법2동 지역주민(25)
9	대전민예총	도안마은 동화로 꿈꾸다 석교마을 봉서루 마당판	2	도안동주민(20) 석교동주민(20)
10	전통연희단 소리울림	문화예술 장터골	1	신인동주민(20)
11	교육연구소 즐기자	까르륵 까르륵 신나는 무대 까르륵 까르륵 신나는 무대	2	대동지역노인(20) 용두동지역 노인(20)
12	마당극단 좋다	꿈을 노래하는 용운동 앞개들	1	용운동 주부(20)
13	대전한국화협회	열린 장난감 연구소 보문 토이 박물관	2	문화동지역 아동(20)
14	무대창작소 광	이동네 저동네 신통방통 각시탈	1	도안동지역아동(20)
15	연극협동조합 나무시어터	연극 · 놀이밥 ‘뚝딱’ 우리는 전설 ‘꼭꼭’	2	천동지역아동(22명) 전민동지역아동(23명)
16	대전문화예술교육연구회 문화발전소	엄마는 우리마을 예술가	1	갈마, 월동주민(20)
17	문화공간 주차	비단길 묘기 대행진 원동 실크로드 프로젝트	1	중앙시장상인(30)
18	대전사진문화발전 KAPF협동조합	사진예술과 만난 나의 삶, 우리 터	1	연축동 주민(22)
19	글로벌 아트 앤 프렌즈	대덕구 장동 산59 숲길에서 향기를 그리다	1	장동주민(20)
20	Lavita 문화예술 교육연구소	두드리는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1	평촌동아동(20)

## ■ 사업 내용 및 분석

-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어 2012년 현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전환되어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음.
- 2006년부터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저 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특수분야, 다문화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예산을 복권기금에서 국고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사업'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하였음. 2010년에는 '지역사회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다시 사업명을 변경하고 2012년부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 사업의 경우 꿈다락 사업이 학생을 매개로 한 학부모 및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차별성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되기도 하나, 엄연히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무엇보다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설정하여 문화복지 성격이 강하며 특히 특정지역과 대상을 상대로 한 사업이란 차이점이 있음.

### ④ 꿈의 오케스트라 (대전 주니어드림오케스트라)

##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활성화
- 사업기간 : 4월~12월
- 교육대상 : 지역 내 아동·청소년
- 사업내용 :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표28] 2014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세부주소	협력기관
대 덕 구	2014. 4~12	초등학생 및 중학생	법동지역 아동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213 대영상가 2층	법동지역아동센터, 한밭지역아동센터, 회덕지역아동센터
동 구	2014. 5~12	초등학생 및 중학생	굿프랜드지 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542번길 27	굿프랜드지역아동센터, 복동산지역아동센터

#### ■ 사업 내용 및 분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성 함양 및 공동체 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의 엘시스테마 활동에 착안한 사업임.
- 대덕구와 동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전 주니어드림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포함한 공연활동을 진행

#### ⑤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문화와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활성화
- 사업기간 : 6월~12월(2015년)
- 사업대상 : 문화관련 전공자, 문화활동 경력자 등
- 사업내용 : 지역문화와 관련된 강좌, 과제, 인턴십,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등

## ■ 사업 내용

- 2015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
- 지정된 지역 양성기관은 총 5개월간의 일정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형 이론교육, 실무 워크숍, 현장 사례연구 등 다양한 심화교육과정을 진행. 특히 2개월간의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도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 문화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심화교육과정의 우수 교육생 중 일부는 연계 교육 사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리더 양성과정 을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2015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전북대학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권역별 5개 기관이 선정되었음.

## ■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을 통해 문화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지역을 연계한 대표적인 전문 인력사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이모작’과 ‘지역문화아카데미 사업’이 있음.
- 그 밖에 전문 인력사업으로 201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순회 지역예술인재교육사업이 있었으며, 현재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각 지역에 맞춘 지역문화 인력 양성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의 예술가와 예비예술가, 예술단체 및 기관의 전문가들의 기획역량 및 지역예술교육가로의 재교육 양성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목적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 전문인력은 문화전문인력이라는 큰 틀 안에 존재하고, 문화행정가와 문화경영자를 포함하여 문화촉매자, 문화매개자, 문화종사자으로 나뉘기도하고, 지역에 국한한 지역문화인력, 지역문화매개자, 지역문화매개인력 등으로 구분되기도 함. 하지만 많은 연구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위, 그들의 역할적 영역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며 그것을 명확히 분류하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음.<sup>16)</sup>
- 송경희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 영역에서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문제는 이러한 체계적 교과과정 설계와 추후 취업과 창업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 수료 후의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연결성도 미비하다” 고 평가되고 있으며 대전 지역의 프로그램도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⑥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 ■ 개요

- 사업목적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홍보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사업기간 : (2015년)7월~9월
- 행사일시 : (2015년) 8월 24일(월)~8월 28일(금)
- 사업내용 :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예술강사지원사업 체험, 전시, 홍보부스 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홍보영상 제작

### ■ 내용

-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효과를 알리는 것을 통해 학교예술교육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예술강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행사성 사업

16) 송경희, “지역문화의 핵심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적 논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인천문화재단, 2015.

## 〈자체기획사업〉

### ⑦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 사업기간 : (2015)년 3월~12월
- 사업대상 :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공무원, 교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인프라 확대사업,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 연수 2회, 워크숍 1회 개최

### ⑧ 아티언스캠프

#### ■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예술 과학 인프라를 접목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역량이 있는 단체
- 교육대상 : 대전거주 14세~19세 청소년 40명
- 교육장소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원도심 일대

#### ■ 사업내용(2014)

##### ○ 프로그램 세부내용

〈주제〉 2050년 이후 대전의 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 강사구성 :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과학자 10명 예정
- 예술가 : 영국 센트럴세인트마틴 대학교 출신 예술가 5명
- 과학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학부·석사 및 박사) 5명
- 운영방법
- 4~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그룹 당 예술가·과학자 1명씩 배치)
- 주당 3회(월, 수, 금), 4시간 운영(오후 2시~6시) / 총 15회 (3회 전시 준비 예정) ※교육일시 및 장소는 추진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물

- 미래의 사람들이 사용할 물건 제작 및 지역 미래모습 상상도
- 캠프 진행과정이 수록된 영상 및 자료집 등

[표29] 2014 아티언스 캠프 사업 프로그램 내용

일 시	내 용	교육장소 (세부주소)
2014.7.24(목) 14:00~17:30	· 오리엔테이션, 조 편성, 세부주제 결정하기	카이스트 (대전광역시유 성구대학로291) N25동1층
2014.7.25(금) 14:00~17:30	· 다양한 거리리서치방법 배우기 (데스크, 지역, 액션리서치 등) · 조별로 대전의 미래에 대해 조사하기	
2014.7.28(월) 14:00~17:30	· 현장학습/조별로 대전의 곳곳 조사하기 (대흥동일대) · 지역 및 액션리서치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2014.7.30(수) 14:00~17:30	· 각조별로 정리 된 조사결과물 발표하기 · 미래캐릭터(스토리캐릭터)만들기	
2014.8.1(금) 14:00~17:30	· 조별로 만든 미래캐릭터 발표하기 · 조별로 대전의 미래를 상상한 이야기 만들기	
2014.8.4(월) 14:00~17:30	· 상상한 미래 이야기로 스토리 보드 만들기 (일러스트 작업)	카이스트 (대전광역시유 성구대학로291) W8동3층
2014.8.6(수) 14:00~17:30	· 3D프린터, 프린팅 배우기 · 조별로 상상한 미래의 물건 발표하기 · 조별로 스토리보드제작 및 조별 활동 발표하기	
2014.8.8(금) 14:00~17:30	· 상상한 미래물건3D프린팅준비·진행1 · 조별로스토리보드완성하기1	
2014.8.11(월) 14:00~17:30	· 상상한 미래물건3D프린팅준비·진행2 · 조별로스토리보드완성하기2	
2014.8.13(수)	· 완성한 최종스토리보드 발표하기	

14:00~17:30	· 만든 미래물건 조별로 발표하기	
2014.8.14(목) 14:00~17:30	· 조별로 만든 스토리보드, 3D결과물마무리하기1 · 작품촬영해보기1	
2014.8.18(월) 14:00~17:30	· 조별로 만든 스토리보드, 3D결과물마무리하기2 · 작품촬영해보기2	카이스트 (대전광역시유 성 구 대 학 로 291) N25동1층
2014.8.20(수) 14:00~17:30	· 전시 준비하기 1(전시용 패널 제작, 책 편집 등)	
2014.8.22(금) 14:00~17:30	· 전시 준비하기 2(전시용 패널 제작, 책 편집 등)	
2014.8.26(화) 19:00~21:00	· 아티언스 프로젝트 전시관람(무료관람)	

- 한국과 영국에서 결과물 전시 진행

## ⑨ 문예아카데미

### ■ 개요

- 사업목적 : 폭넓고 다양한 인문교양 지식 제공으로 대전 시민의 열린 학습 환경 조성
- 사업대상 :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 사업내용 : 예술중심 인문학 강좌 운영

## ⑩ 가족동행 프로젝트

### ■ 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하는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및 가족 문화 형성
- 사업기간 : (2014년) 3월~11월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3개 단체
- 교육대상 : 문화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가족단위

###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를 통한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표30] 가족동행프로젝트(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연 번	주관 단체명	협약 기관명	장르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세부주소
1	문화 공간 주차	대전중구 드림 스타트 센터	미술	우리가족 행복다남 길	2014.6.28(토) ~ 9.27(토)	대전중구 드림스타트센터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00중구청)
2	뮤직 팩토리	루시 모자원	음악	가족과 함께하는 춘(春).하(夏) .추(秋).동(冬)	2014.7.4(금) ~ 10.17(금)	루시모자원 (대전광역시중구선 화서로23번길63)
3	미술 공감 편편 아트	대전 가정법원	음악 미술	가족, 함께 그리고, 만들고 노래하다	2014.7.18(금) ~ 10.31(금)	미술공감 편편아트 (대전광역시유성구 엑스포로488엑스 포코아4층8-2호)

⑪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 내용 :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방법 : 전문기관 외부 용역계약 체결

⑫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 기간 : 2014년 4월~12월
- 대상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실무자 등
- 내용 : 문화예술교육 주요 계획 및 정책공유, 기타 의견 수렴  
→ 지역문화예술관련 전문가 간담회, 단체개인간 네트워크 구축 등

⑬ 대전문화예술서포터즈

- 대상 : 10명(문화예술 및 글쓰기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
- 내용 : 지역 문화예술 현장 정보수집 및 제공

⑭ 대전 ARTe 정보화

- 내용 :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SNS운영, 센터 홍보물 제작, 사업결과자료집 발간, 관련 아카이브 구축 및 현장안내도 등 간행물 제작 배포

## 6.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석

### 1) SWOT분석

외부환경 / 내부환경		강점(S)	약점(W)
		<p>S1: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과 소득수준, 삶의 질</p> <p>S2: 교육도시로의 전통과 평생학습도시 기반</p> <p>S3: 교통 중심지로서의 안정적 지역성장 기반</p> <p>S4: 과학기술 중심지로서의 성장동력 풍부</p>	<p>W1: 지역문화 전통 및 문화역량 미약</p> <p>W2: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미성숙</p> <p>W3: 지역 내의 불균형 문제</p>
기회(O)	<p>O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및 지역화 전략</p> <p>O2: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국민 문화권</p> <p>O3: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한 지역문화자치 기반 마련</p> <p>O4: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연계된 생활문화사업의 확대</p> <p>O5: 자유학기제</p>	S+O	W+O
		<p>- 생애주기별 시민문화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p> <p>-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외부의 창조 계층 (전문인력)유입</p> <p>- 과학기술 등과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창의력 향상프로그램 제공</p>	<p>-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p> <p>- 생활문화예술 사업과 연계한 사회문화예술 기반 마련</p> <p>- 공동체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p>
위협(T)	<p>T1: 경기침체와 복지예산확대로 인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 정체</p> <p>T2: 인근 세종시 조성으로 인한 전문인력 유출 가능성</p>	S+T	W+T
		<p>-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실질 복지(삶의 질) 향상</p> <p>-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허브 기능 강화</p>	<p>-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보</p> <p>-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역량의 강화</p>

○ 창의적 환경요인의 분류지표<sup>17)</sup>

[표31] 창의적 환경요인 분류지표

유형	분류	세부기준	연구자
개방성	다양한 주제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다양성</li> <li>- 업무환경에 외부인 참여도 및 교류의 활성화</li> </ul>	Florida(2002) Amabile(1996) Currid(2009)
	개방적 의견 제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의 아이디어 및 의견개진 업무 반영 환경</li> <li>- 외부인력과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 교환, 교류의 개방성</li> </ul>	강홍빈(2010) Ekvall(1996) Abbey Dickson (1983)
자율성	업무 환경의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환경이 자기주도적인 가변성 및 유연성</li> <li>- 시간, 복장, 규범 등 근무환경 유연성 및 자율성</li> </ul>	Ekvall(1996) Abbey Dickson (1983)
	의사 결정의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권</li> <li>- 의사결정과정 중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결정 보장</li> </ul>	Amabile(1996) Burnside(1990) Oldham Cummungs(1996)
사회 자본	관계들의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들 간에 신뢰성 형성</li> <li>- 지원네트워크의 외부협력 구성원의 신뢰형성</li> </ul>	Amabile(1996) Burnside(1990) 마사유키(2004)
	네트워크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관련 외부기관들과 정기적 모임 활성화</li> <li>- 직원들 간에 비공식모임 네트워크의 긴밀성</li> </ul>	Landry(2005) Florida(2002) Currid(2009)
지원 환경	관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성 증진 위한 사내프로그램, 공간지원 분위기</li> <li>- 창의적 아이디어 및 작업에 대한 보상체계</li> </ul>	Burnside(1990) Ekvall(1996) Oldham Cummungs(1996)

17) 전지훈, 창조산업 클러스터에서 창의적 환경의 수요자 지향성 연구. 2013문화정책논총 27집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체계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체계 구성원들의 적극적 조정자의 존재</li> <li>-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협력프로젝트 수행빈도</li> </ul>	Landry(2005) Currid(2009) 이지선(2008)
	창의성 자극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시설 등 오락 및 유희를 위한 공간의 존재</li> <li>- 편안한 대화, 비공식모임 등을 지원하는</li> <li>- 공공공간 환경</li> </ul>	Ekvall(1996) Abbey Dickson (1983) Landry(2005) Florida(2002)
문화 환경	소규모 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장, 갤러리 같은 소규모 문화공간의 보유 및 활용</li> </ul>	Florida(2002) Currid(2009)
	문화예술 활동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내 문화 예술관련 동호회 운영 및 활성화</li> <li>- 축제나 이벤트 등의 문화적 행사 개최와 활성화</li> </ul>	김태경(2010) Landry(2005) 가즈코(2004)
	쾌적한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성을 위한 공원 및 정원, 광장 조성</li> </ul>	마사유키(2004) Castells(2001)

- 위의 연구 등에 따르면 도시의 창조역량을 기르기 위한(창조도시) 중요한 속성이 개방성, 자율성, 사회자본, 지원환경, 문화환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도시가 되려면 위와 같은 속성이 지역 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작동되어야 함.
  - 창조도시는 창조계층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와 문화적 개방성이 필요하고 그들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신뢰와 연대, 협동 등)과 지원 환경이 결합되어야 함.
- 대전광역시도 근대화 이후 성장한 도시로 평균적인 한국의 지자체보다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모두 높고, 삶의 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의 풍부한 성장역량을 갖고 있음.
  - 대전의 문화예술 전통이 깊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반면에 개방성의 측면에서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특히 과학기술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다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되는 지역문화의 역량이나 문화예술교육 기반에 비해서 문화수요 자체는 아주 높은 편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성인

층, 노년층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고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높은 수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지역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으며 다른 영역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임.

## 2) 문화예술교육관련자 FGI

### ○ 지역문화예술교육 역량의 문제

- 서울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대전 역시도 도시의 문화예술수요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역량이 높지 않음. 문화재단이 대전광역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사업 개발보다는 중앙(문화체육관광부, 진흥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현재 대전광역센터는 문화재단의 1개 팀이며 그나마도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있지 않음.(팀장 포함 4명)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구조적으로 중앙에서 하달하는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지자체 규모가 다르지만 광주광역센터에만 해도 9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기초문화재단인 성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팀에 10명, 마포문화재단의 문화교육팀 인력이 8명인 것에 비해 너무 열악한 상황임.
- 지원기구 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문화예술 교육의 전문성이 높지 않음. 이것은 대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전문 기획자도 부재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인식 자체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공공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능위주의 교육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음.
- 이것은 현장을 타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님. 지난 10여년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방향은 빠르게 발전해 갔으나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준비할 시간이나 기회를 주지 못했고 사업으로 즉각 내려지면서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방향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버렸음.
- 대전은 특히 중앙 단위에서 내려오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특색 있으면서도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는 단지 광역센터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전문화된 기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이를 광역센터에서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대전의 문화환경 및 특색

- 대전지역의 문화 환경이나 역량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래 지역문화의 전통이 깊던 곳도 아닌데다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쏠림이 강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술창작품이나 문화프로그램은 체감적으로 적다고 느껴짐. 예술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부족한 지역의 문화역량을 기르기 위한 한 방편임. 반면에 문화예술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게 체감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경우도 프로그램 공급에 비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음. 특히 가족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목표

- 참여자들에게 대단한 예술적 성과를 주는 것보다는 ' 창의력체험활동' 등을 통해 창의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는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과 같은 부수적 효과도 중요한 부분임.
- 문화예술교육의 직접적 목표는 아니겠지만 이런 활동이 증대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가는 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이 확대되면 지역의 창의역량이 동반하여 올라갈 것이라 봄.
- 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적 역할이 존재함.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동아리 활동과 같이 최근 주요한 문화정책 과제로 등장한 생활문화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중요함.

####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돌봄동아리 등으로 다양해졌는데 동아리 대상 교육이 수업의 집중

도가 높은데 비해 교과연계 과정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음.

- 그런데 이 부분은 교과연계과정의 교육목표 대한 예술강사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음. 교과연계과정은 예술교육의 방법론을 빌어서 교과 자체에 대한 수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기획’이 필요함. 그런데 그냥 동아리 교육과 별 차이 없이 접근하여 학교와의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동아리 연계의 경우 공연, 전시 등의 결과물에 대한 압박감이 있음. 특히 중 고등 과정에서 경연대회가 있는 장르의 경우 학교관계자나 부모들이 경연 성적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을 얻길 원하는 경우가 있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사업대상이 변경되면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사업과의 차별성이 미약해졌음. 실상 꿈다락 사업의 경우 가족들로 교육 대상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학생을 매개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화의 경우는 주로 소외계층 등 특정 지역과 대상을 상대로 한 사업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꿈다락 사업의 경우 또한 장소섭외의 어려움이 존재함. 공공장소를 스스로 찾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부 시설들에서는 여전히 주말에 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음.

#### ○ 교육성과

-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성과를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학생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통해 자발성과 창의력에 증진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음.
- 교과 연계과정의 경우 충분히 목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획이 이뤄지고 학교 측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뤄질 경우 예술강사와 학교가 모두 만족 할만한 교육적 성과를 이뤄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존재함.
- 꿈다락 사업의 경우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 개선 등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오히

려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이 발견됨. 이미 꿈다락의 교육적 효과가 많이 홍보되어 다른 꿈다락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이들이 다시 다른 꿈다락 프로그램에 재차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들의 경우 성장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만드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음.

#### ○ 교육사업 참여 단체 및 예술강사들의 성과

- 경제적 측면에서 참여 예술가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예술활동 측면에서 테크닉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술활동을 대하는 태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 예술단체의 경우, 해당 분야 예술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저변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한 목적이기도 함.

#### ○ 대전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특색/차별성

- 대전의 문화예술이 차별화되는 뚜렷한 특성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
- 대전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대전에서 가능한 문화예술의 영역을 좁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포함되는 다양한 범주가 있기 때문에 꼭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고집하는 프로그램만이 전부는 아니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주종을 이뤘으나 꿈다락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 지역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분류를 통해 대전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보다 포괄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적절히 안배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열악하고 기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엑스포, 교통, 과학이라는 것이 그나마 지역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인 과학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자

꾸 과학이랑 엮으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존재함.

- 현재 대전광역시센터에서는 과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아티언스 캠프를 운영 중임.
- 대전지역 문화예술교육인력 및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나 교류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역량 성숙을 위해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지원체계의 문제점

-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세부지침이 붙는데 이것들의 변경이 잦은 편이며 지역별로 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침을 주되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에서 자율성을 갖고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항상 사업은 촉박하게 내려오는데 지역 현장의 상황에 비해 너무 지침이 유동성이 떨어져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많다는 의견임.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강사선발이나 학교선발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학교에 대부분 주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광역센터의 입장이 애매할 때가 있음. 특히 강사와 학교 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할 경우 광역센터에서 개입할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입장임.

○ 학교예술강사 근로자 인정으로 인한 광역센터 운영의 문제

- 현재 광역센터(지역운영기관)가 예술강사와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임에도 예술강사의 근무조건이나 처우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 없고, 제도개선이나 각종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형식적인 입장임.
- 오로지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권한의 이관 없이 중앙에서 담당하던 운영사무를 지역에 분담시키는 형태가 되고 있음.
- 제도설계,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지침, 임금(강사료)책정, 선발,

평가, 배치 등 강사처우수준 결정과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문화부) 및 기관(진흥원)이 계약체결 주체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고 있음.

○ 지역네트워크 및 거버넌스의 관련

- 대전광역센터 사업 중 커뮤니티사업이 있음.
- 교육자센터에 참여하는 단체나 수강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사업이나 아직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함.
- 지역특성화 사업은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담당자들과 같이 1박2일로 워크숍을 3년째 이어오고 있음. 담당자들은 교류가 생겨서 서로 벤치마킹함.
- 협력사업은 해본 적이 없음. 예산문제도 있고, 담당자들 끼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함.

○ 기타 문제점

-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음.
- 지역자체의 인력풀이 부족
- 예산 증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이 존재해야 함.
- 중앙에서 정책 이슈에 따라 사업을 만들고 없애는 방식이 지역에서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

### 3) 문제점 및 쟁점 도출

- 지역의 문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화예술(교육)역량의 문제
  - 대전이 상대적으로 소득과 고용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이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은 편임.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역량으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움.
  - 대전의 재정 구조나 지출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인적 인프라의 축적이 충분치 않음. 이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의 낯고 있는 악순환임. 또한 두 번째는 대전이 근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지역의 특성상 지역의 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역량은 지역문화역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 지역의 문화역량이 문화예술교육역량으로 전환되고, 다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기를 수 있음.
- 광역센터의 통합적 정책 수행 기능 부재
  - 현재 대전광역센터의 사업은 대부분 중앙(문체부, 진흥원) 연계 사업의 수행에 치우쳐 있으며 자체 기획 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단발성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비단 대전광역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 등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광역센터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이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도입되던 초기 단계에 진흥원 중심으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지역에 일방적으로 공급되었던 틀이 지속된 까닭에 중앙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의 관리운영 중심의 구조로는 광역센터의 업무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탓이 크다 하겠음.
  - 당장 센터의 인력 구조나 예산에 있어서 지역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과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음. 현재 대전광역센터의 경우 자체기획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중앙연계 사업들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제도, 주체의 위상 면에서 모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대전광역센터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센터는 중앙연계 사업을 전달하는 기구가 아니며 특히 학교예술강사, 꿈다락 사업의 관리기구는 더욱 아님. 대전광역센터의 문화예술정책사업의 범위는 대전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대상도 시민 전반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광역센터의 정책 생산 능력과 조정능력이 형성되어야 함.

- 장원호의 연구에 따르면<sup>18)</sup> 향후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행업무를 광역센터로 대폭 이관하고 진흥원은 중앙기관으로서 연구, 조정,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량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진흥원은 중앙기관으로서 조정 및 관리 기능과 실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국제 문화예술단체와 국내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센터에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컨설팅 능력 등의 질적 성장을 기해야 한다는 것임.

#### ○ 지역문화, 생활문화와 문화복지 등 인접 영역에서의 요구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또한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문화권이 국민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문화복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향후, 이에 대한 요구도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임.

- 이미 대전의 경우는 사회복지 영역, 특히 노인복지 영역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민문화나 문화복지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향유, 창작, 참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하고 있거나 출발지로 삼고 있음.

---

18) 장원호,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 분석-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특히 그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쇼핑몰 문화센터 등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지역문화진흥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근린생활권에 자리한 “걸어서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기존의 문화원, 문화의집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새로운 지역거점형 공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와 같은 지자체 요구에 의한 특성화된 공간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런 새로운 생활권 문화공간은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공동체 지향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임.

○ 상시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

-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문제로 지적되는 역량과 기반의 부족은 외부적인 전문적 역량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지역 문화예술역량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역량이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함.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이 단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협력사업과 상시적 교류의 일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전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이것이 지원기관(광역센터)과 연계된다면 기관이 겪고 있는 예산과 조직, 인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의 재발견, 여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 중국에는 대전 문화예술교육의 차별화된 특성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견해나가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성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특성화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대전의 성장 가능성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에너지를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형성을 피할 수 있음.

※ 광역센터 인력 현황 문제<sup>19)</sup>

- 16개 광역센터 역할과 조직위상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정규조직, 임시부서(TFT), 부서 내(內) 사업분장 등 운영기관별 성격과 조직구조 및 직제 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 현황

- 2014년 6월 기준으로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총 106명이며 이중 58.5%인 62명의 인력이 1년미만의 기간제 계약직형태로 고용되어 있음. 전체 운영인력의 절반이상이 매년 근로계약 갱신 및 종료에 대한 불안정 속에서 근무 중에 있음.

---

19) 장재환,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인천문화예술교육통신 35호, 2014.

[표32] 광역지원센터 인력 현황(2014년 6월 기준, 단위:명)

지 역	합 계	정규직 /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사업 총괄	예술 강사	꿈다 락	지역 특성 화	기타	사업 총괄	예술 강사	꿈다 락	지역 특성 화	기타
강원	5	1						1	1	1	1
경기	8	1						4	1	1	1
경남	7	2	1					2	1	1	
경북	5						1	1	1	1	1
광주	6	1	1	1	1						2
대구	6	1				1		1	1	1	1
대전	7	1	1	1	1				1	1	1
부산	9	1	1	1	1	3					2
서울	11	1	2	1	1	1		2	1	1	1
울산	6						1	1	1	1	2
인천	6	1	1		1	2			1		
전남	7	1			1			1	1		3
전북	5						1	1	1	1	1
제주	6	2						1	1	1	1
충남	5	1	2	1	1						
충북	7	1				1		2	1	1	1
합계	106	15	9	5	7	8	3	17	13	11	18

- 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16개 전 센터에는 3억원(국비 1억5천 + 지방비 1억5천)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2014년 사업지침에 의하면 3억 원 중 지방비 내에서 인건비, 경상운영비를 자율편성(기존 인건비, 운영비 상한 비율 폐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의 고용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와 처우수준은 각 센터가 소속된 기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됨.
- 광역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절반 이상의 인력이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있는데 이는 문화 예술교육 지원업무의 중장기적 역량 축적과 사업의 연계성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겠음.

- 특히 문화예술사업이 지속적인 인적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7. 대전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향후 전략

### 1) 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 문화예술교육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영역 안에서의 다양한 장르와 집단과 연계되어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으로서 다양한 영역(사회일반, 교육체계, 사회복지, 청소년, 여성)과의 연계 선상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내용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접분야(인문, 철학, 과학, 교육, 체육)와의 융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주도성 및 능동성 강화 모색

- 현재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역량이 투입되는 것은 예술강사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학교예술교육분야 임. 현재 중앙 사업의 전달구조를 탈피하여 지역의 교육청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대전 지역 공교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학교들이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부응하는 특화된 사업의 기획을 지역 문화시설과 문화자원을 참여를 통해 발굴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 〈자유학기제〉

### ▷ 자유학기제 개념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임.

### ▷ 자유학기제 목적

-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시

[그림16] 자유학기제 개요



- 또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 여기서 세부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체험·실천중심 인성 교육 추진' 이나 '창의력 기반 융합인재교육 강화' 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교집합이 이뤄지는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들을 발굴·제안하여 대전시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의 능동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복지 시스템 강화 방안 제시
  - 아직까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대상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생활문화 영역과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춰 계층·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인구구성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기획도 필요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유관 기관의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정리해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생활권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지역 문화 격차의 해소
  - 한국의 지자체의 문화시설은 충분한 도시계획적 검토를 통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문화시설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문화복지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지역에 균등한 배치를 최대한 고려하는 한편 스케일별 프로그램의 배치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되어야 함.

[표35] 스케일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배치

구분	주요시설	사업
마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보생활이 가능한 권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마련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기능을 확장하여 마을의 공간적 중심 형성)</li> </ul>	(생활문화, 복지, 여성, 육아 등) + 문화예술교육
지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마을버스 등으로 이동이 가능한 권역에서의 거점 시설 마련</li> <li>- 교육(도서관 등), 청년과 관련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단수의 거점 조성 (예: 미디어테크)</li> </ul>	(교육, 청소년, 등) + 문화예술교육
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시권</li> <li>- 기능별 전문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특화된 거점 조성 (축제, 대학기관과의 협력 공간 등)</li> </ul>	(예술, 축제, 경제, 등) + 문화교육

○ 통합적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지역 문화전문인력 육성

- 지역 문화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며 정책의 수단이기도 함.
-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포함한 문화예술관련 활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임. 전문인력의 축적 없이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역량의 강화는 불가능함.
- 지역문화의 인적 자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한 가지는 외부 자원의 유입이고 또 한 가지는 내적 자원의 성장임. 이미 한국 사회의 인구유동은 매우 잦은 편이며 인적자원의 관리를 호수에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사고하면 안 되며 흐르는 강의 폭을 넓혀서 언제나 많은 자원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신선하고 매력적인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외부인력의 유

입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동시에 이 사업이 내부 인적자원의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지역 쿼터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대전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 대전문화재단은 2009년 하반기 설립되어 2010년부터 대전광역센터로 지정받아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업무를 수행해왔음.
- 그러나 비교적 광역재단으로서의 역사가 깊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광역센터 지정도 뒤늦게 이뤄지면서 업무의 단절이 있었음. 중앙 중심의 공급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들이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재단 내 광역센터는 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의 자기역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음.
- 대전광역센터가 현재의 단순 수행기구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재단의 일개 팀(교육지원팀)으로 있는 광역센터 만의 고민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함. 대전문화재단의 전반의 비전과 미션, 전략목표와 방향 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가 고려되어야 함.
-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지역문화재단과 광역센터의 역할이 한정되지 않음. 중앙의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과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영역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임.

## 2) 기본방향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전체적 구조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 정책 뿐만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등 인접 정책 영역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 일반의 일상에서 있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있음.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도입 단계에서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이 주된 정책 대상이 되어왔고 이후 복권기금 등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들이 도입되면서 소외계층이 또 한 축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었으나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은 정책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사회문화예술교육

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세대와 계층에 따른 다양한 국민 집단에 존재하는 문화 욕구와 수준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문화예술교육로의 확대가 필요되는 것임.

- 학생과 시민 개인의 전 영역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 정책프로그램과의 연계와 협력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이 설계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은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추진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첫째, 문화적 창의성의 제고,  
둘째,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  
셋째,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  
넷째, 문화적 해득력(cultural literacy)의 제고
- 이상의 목표들은 문화예술교육이 단지 문화예술의 향유와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활동을 통해 주체의 자기성찰을 기반 했을 때 이뤄질 수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정책 도입에 있어서 관점과 맥락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추진되면서 일자리 창출, 향유자의 양적 확대, 소외계층의 대상화와 같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왔던 한계가 존재했음.
- 특히 중앙 중심의 공급형 정책 전달체계 하에서 지역의 문화적 정책성과 사회적 다양성, 문화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지역이 자기 역량을 길러내고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발굴해나갈 기회와 경험이 부족해왔음.
- 지금까지의 대전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한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해왔음. 중앙에서 설계되어 공급되는 정책사업의 수행에 치중되면서 지역의 사회환경, 문화생태계,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왔으며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주체를 키워낼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 이에 따라 대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방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첫째, 지역역량의 성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대전은 근대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이룬 지역으로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 깊지 않으며 높은 생활수준과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비해 자생적 문화역량이 충분하지 못함. 문화예술교육정책 설계에 있어서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이 모든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연계되어야 함.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같은, 특화된 인력사업의 지속적 추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설계가 사업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와 축적에 맞춰져야 하며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되는 문화예술교육단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이 패키징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음.

둘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광역시센터가 대전문화재단의 팀(교육지원팀) 형태로 존재하는 구조와 인력 규모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문화팀과의 업무통합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본부 체계로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는 단지 광역센터의 기능과 업무력을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재단 전반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설치하여 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sup>20)</sup>

셋째, 공교육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현재의 공교육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어있음. 그러나 이 사업이 중앙의 진흥원에서 정책 도입 초기부터 주도해나가면서 사실상 지역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기존의 공교육 과정이 철저히 입시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하지만 최근 소수지만 일부 학교에서 교과연계를 통한 교육혁신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고, 자유학기제 도입 등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공교육 구조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기회와 접촉면이 넓어진 측면이 있음.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넷째,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여가활성화 기본법 등 최근 다양하게 이

---

20) 다음 <참고사례1>에서 다루는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와 관련 법률을 참조하여 제정하면 될 것임.

뤄지고 있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에 대한 지원체계의 변화 및 강화 방향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거버넌스 활성화와 지역특성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다른 문화예술정책 추진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정책 역시 지역 문화 생태계 안팎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 개별 활동가, 예술가, 시민문화조직과의 협업과 개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생적 활성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이들의 다양한 참여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앞서 언급한 지역문화역량의 강화에 있어서도 주요하게 기능할 수 있음. 더불어 이런 지역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와 지역의 사회자원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대전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에 따른 특성화된 사업들이 구성될 수 있을 것임.

## 〈참고 사례1〉 타 지자체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 지자체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현황

- 현재 경기, 충북, 제주 등 3개 지역이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진흥의 기본 목적과 원칙,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협의회, 지원센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 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제정

- 경기도 : 2009년 12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 2011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 충청북도 : 2013년 5월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 ○ 주요 내용

- 목적

[표36]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목적

구 분	내 용
경기도	-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충청북도	-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제주도	-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확대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문화역량 활성화

- 기본원칙

[표37]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기본원칙

구 분	내 용
경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한다.</li> <li>2.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와 문화향수권의 증대를 도모한다.</li> <li>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를 도모한다.</li> <li>4. 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배치와 재교육을 실시한다.</li> <li>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li> </ol>
충청북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의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한다.</li> <li>2.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와 문화향수권의 증대를 도모한다.</li> <li>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를 도모한다.</li> <li>4. 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배치와 재교육을 시행한다.</li> <li>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li> </ol>
제주도	- 해당 규정 없음
공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 환경 변화 유도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li> <li>- 주민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 및 문화향수권 증대</li> <li>- 지역문화기반시설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연계</li> <li>- 전문인력(문화예술교육사) 양성·배치와 재교육</li> <li>- 관련 단체 사업 지원</li> </ul>

- 지자체의 임무

[표38]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지자체 임무

구 분	내 용
경기도	- 해당 규정 없음
충청북도	-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시책을 마련
제주도	- 다음의 시책 마련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지원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5.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의 임무

- 문화예술교육 계획

[표39]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문화예술교육 계획수립

구 분	내 용
경기도	<p>-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3.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li> <li>4.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도의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시·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과 협의</p>
충청북도	- 해당 규정 없음
제주도	- ‘지자체의 임무’ (제2조제1호)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
주요 내용	- 충북에는 해당규정이 없으며 경기도와 제주도는 지자체 문화예술교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되어있음

- 지원협의회

[표40]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지원협의회 규정

구 분	내 용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경기도 부교육감</li> </ul>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도 및 도교육청 소속 문화예술 관련 국장과 충청북도의회 소속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li> </ul>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경기도 부교육감</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문화예술 교육지원협의회 설치구성</li> <li>- 지자체에 따라 구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두고 있음</li> </ul>

-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주요업무

[표41]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광역센터의 주요업무

구 분	내 용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li> <li>- 시·군의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li> <li>-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li> <li>-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li> <li>-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li> <li>-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li> <li>- 시·군의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li> <li>-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ul>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규정 없음</li> </ul>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li> <li>-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li> <li>-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li> <li>-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li> <li>-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li> <li>-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사업</li> <li>-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li> <li>-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학술 연구 및 조사</li> <li>-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li> <li>-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li> <li>-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li> <li>- 국제협력 및 관련사업</li> <li>- 기타</li> </ul>

- 전문인력양성(문화예술교육사)

[표42]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전문인력 관련 조항

구 분	내 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li> <li>- 인력채용 등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li> </ul>

- 기타 내용

- 기반구축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 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관련된 민간단체 및 시설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음
- 제주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조로 다루고 있음

### 3) 추진전략

-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전략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표43] 대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전략

방향1. 문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역량의 문제 해소	
⇒ 문화예술교육 역량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끌어내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민간과 중간 지원조직의 인적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요구됨.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강화</li> <li>- 문화예술교육 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 추진</li> <li>-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가능성 강화</li> </ul>
방향2. 광역센터의 통합적 정책 수행 기능 강화	
⇒ 중앙 연계 사업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정책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성장하며 대전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들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연계성을 갖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정책 기능을 강화함.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문화재단 내 광역센터 위상 강화</li> <li>- 광역센터의 정책기능 강화 및 문화재단 연계 사업 확대</li> <li>- 문화예술교육 관련 평가기능 강화</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제도화</li> </ul>
방향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주도성 강화	
⇒ 기존의 중앙사업 진행 위주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틀을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문화예술 사업으로서 강화, 지역의 공교육 혁신 방향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연계 사업 개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현장 역량 강화</li> <li>- 자유학기제 대응 프로그램 개발</li> <li>- 지역의 예술강사사업의 특성화된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li> </ul>

#### 방향4. 생활문화, 문화복지 등 인접 정책 영역과의 연계성 강화

⇒ 방향 :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 등 관련법 제정에 따라 생활문화 공간과 문화복지사업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범위 확대 및 연계성 강화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실버세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li> </ul>
------	---

#### 방향5. 지역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

⇒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단체, 인력 간의 원활한 소통구조 마련, 지역문화교육정책의 공통 이슈 발굴 및 정책 개발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인)네트워크 강화</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챌린저 예산 사업 개발(자유공모형 사업)</li> </ul>
------	--

#### 방향6.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특성화전략의 필요성

⇒ 방향 : 지역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설계, 지역의 미래비전과 연계된 창조역량의 육성 발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원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신기술 기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특성화</li> </ul>
------	--

#### 4) 목표와 과제

##### ■ 추진 전략의 기능별 재(再)구성

– 추진전략을 기능별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표44] 추진전략의 기능별 재구성

추진 전략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강화</li> <li>– 교육현장 역량 강화</li> <li>– 지역의 예술강사 사업의 특성화된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li> <li>–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가능성 강화</li> </ul>
	프로그램 개발 <sup>2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학기제 대응 프로그램 개발</li> <li>– 생활문화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실버세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li> <li>– 지역자원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신기술 기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특성화</li> </ul>
	공간	– 문화예술교육 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 추진
	거버넌스	–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인)네트워크 강화
	추진체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문화재단 내 광역센터 위상 강화</li> <li>– 광역센터의 정책기능 강화 및 문화재단 연계사업 확대</li> <li>– 문화예술교육 관련 평가기능 강화</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제도화</li> </ul>

21) 프로그램 구성에서 다음 〈참고사례2〉에서 다루는 서울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22) 이외에 주요 프로그램으로 ‘서울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와 ‘창의거버넌스 구축’이 있음.

## 〈참고 사례2〉 서울창의예술교육 - “서울창의예술학교”

### ① 개요

- 서울창의예술교육 :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통합브랜드
- 통합예술교육으로 차별화된 예술교육 실천
- ‘서울창의예술학교’ 는 서울창의예술교육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sup>22)</sup>

### ② 서울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내용

[표45] 서울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돌봄교실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돌봄〉</li> <li>- 교과연계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li> <li>- 공연연계 통합예술교육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li> </ul>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일반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 서울시민예술대학

### ○ 예술로 돌봄(어린이)

- 개요 : 서울문화재단 소속 예술가교사(TA: Teaching Artist)들이 서울 곳곳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 어린이들은 TA 선생님과 함께 무용, 연극, 시각예술의 기초감각을 배우는 〈예술로 돌봄〉수업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 자신감과 협동심 배양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 사업기간 : 연간(여름, 겨울방학 제외)
- 사업내용 :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TA 파견수업, 수업 교보재 지원
- 프로그램 특징
  - 무용, 연극, 시각예술, 음악, 문학 기반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전공의 TA들이 공동개발)
  - 저학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중심형, 체험놀이형, 협동형 프로그램

- TA 연구과정, 컨설팅, 평가 등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 주 1회 60분 수업
-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학교〉
  - 신청기간 : 매년 초 (1~2월 중)
  - 신청방법 :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통해 희망학교 신청접수
  - 선정기준 : 저소득층 밀집학급 우선 지원, 프로그램 참여의지 및 지원역량 고려
- 〈TA〉
  - 신청기간 : 매년 초 (1~2월 중)
  - 응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 수업지도안) 제출
  - 선정절차 : 1차(서류)심사→2차(면접+수업시연)심사

\* TA : 서울문화재단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사업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지칭하는 말로, 예술언어에 대한 이해 및 통합적 활용 능력을 갖추고 교육학적 기술을 겸비한 자로서 학습자를 삶에 대한 미적체험의 기회로 안내하는 자를 의미

#### ○ 예술로 플러스(어린이)

- 개요 :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교과연계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학기 중에는 수업시간에 TA가 파견되어 진행하는 〈예술로 플러스〉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일반 교과수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교 일반학급
- 사업기간 : 연간 (1학기 5~6월 / 2학기 10~11월)
- 사업내용 : 교과연계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TA 파견수업, 수업 교보재 지원
- 프로그램 특징
  - 교과 내용을 예술장르로 풀어내어 학습대상자가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습득하도록 구성
  - 교사와의 공동연구, 팀티칭을 통해 학교 내 활용 가능성 및 학습대상자의 참여도 제고

-주 1회 80분 블록수업

- 운영방향 : 초등학교 정규교과 내 통합예술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운영기간 : 2015년 4월~11월(수업실행은 5월~6월, 10월~11월 중 / 각 8주)
- 운영대상 : 서울시내 초등학교 30개교 일반학급 (학기별 60학급)
- 운영방법 : TA와 교사의 공동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규 교과시간 내 예술 수업 운영지원

#### ○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어린이)

· 개요

-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으로 특화된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사업 일환으로 매년 방학기간 중 선보이는 초등 저학년 대상 공연+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특유의 상상력과 놀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장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감상과 관찰, 참여와 체험이라는 4가지 활동요소를 중심으로 공연 참여 어린이들은 스스로 세상에 대해 진지한 탐구정신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발견

· 참가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1~3학년)

· 프로그램 특징

- 참여 어린이들이 배우와 함께 활동하며 주체적으로 예술을 체험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Inclusive Theatre)과 체험한 예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창작해보는 교육 워크숍으로 구성된 '공연+교육' 융복합 예술프로그램

#### ○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청소년)

· 개요

- 청소년 창의예술교육사업은 2008년 중·고등학교 문화예술동아리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제9차 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맞추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로 개편 운영해왔음
- 2016년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는 현재 교육현장의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맞춤형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일반계 중학교(학급단위)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 제외

· 주요일정

- 4월~7월 :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교육운영단체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8월~11월 : 학급별 교육과정 운영(학교 교육과정은 2학기에만 운영)

· 사업내용

- 상반기(4~7월) : 교육운영단체 인문적 역량강화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 연구개발
- 하반기(8~11월) : 2학기 교육과정 집중 운영(학급당 8차시 \*1회 2시간 블록타임)

· 프로그램 특징 : 공연예술, 시각예술 활동기반의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

- 참여, 관찰, 토론활동을 통해 감각과 지각을 열어주는 “미적체험 예술교육”
- 연극,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예술에 참여하는 “통합적 예술교육”
- 2학기 학급당 8차시 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과정중심 예술교육”
- 분야별 전문예술교육가 3인으로 구성된 “팀티칭(team teaching) 예술교육”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노년층)

· 개요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베이비부머세대(50~59세)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발견하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서울시 자치구 내 문화예술기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의 특성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예술교육전문가들이 운영

· 교육대상 :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 및 베이비부머세대(50~59세)

· 교육기간 : 매년 4월~12월 (학기제 운영)

· 교육장소 : 서울시 자치구 내 문화예술기반시설,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기타 문화시설 등

· 교육분야 : 통합장르,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 미술, 음악 등

· 교육내용 : 어르신 대상으로 특화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 교육비 : 전액 무료

· 교육특성

- 기량교육 위주 교육프로그램을 탈피하고 경험과 체험 중심의 통합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 연계를 통한 노인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실버 문화예술활동가 양성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

### ○ 서울시민예술대학(성인)

· 개요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일반시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음악, 시각예술,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장르가 만나 탄생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일반성인 대상 융합형 또는 장르별 심화형 예술참여 프로그램

-예술가와 예술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연구개발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시민들을 위해 제공

· 교육대상 :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일반성인

· 교육기간 : 매년 4월~12월

· 교육장소 : 서울시내 문화예술기관

· 교육분야 :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 미술, 음악, 인문학 등 융합형 통합 또는 장르별 심화형 예술참여 프로그램

· 교육내용 : 일반성인 대상으로 특화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 교 육 비 : 전액 무료

· 교육특성

-기량중심 또는 취미교육 위주가 아닌 미적체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또는 통합형 예술참여 프로그램

-음악, 연극, 문학,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가 융복합 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민들이 적극적인 예술향유의 주체가 되어 예술로 함께 소통하는 예술현장

-참여 대상과 특성별 상황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 ③ 평가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한 주체 및 시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함

-개인의 창의성 구현이라는 일관된 방향 설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관리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참여 폭을 넓히고 다양한 예술가(집단)들을 활용

-자유학기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폭넓게 활용함

■ 기능별 목표 설정과 세부과제

**목표 1. 지역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전반의 역량을 강화시킴</li> <li>- 교육현장(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는 것과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며 이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끌어올림.</li> <li>- 지역에서의 자체 기획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주도적 기획사업 개발</li> <li>-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가능성 강화함</li> </ul>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li> <li>- 학교예술강사사업을 활용한 교육혁신 시범 사업 개발</li> <li>- 학교예술강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사업</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챌린저 예산 사업 개발(자유공모형 사업)</li> <li>-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li> </ul>

**목표 2.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강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과 연계된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개발</li> <li>- 지역자원 특성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응하여 지역 예술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li> </ul>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실버세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li> <li>-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li> <li>- 자유학기제 대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li> <li>- 신기술 기반 실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ul>

### 목표 3.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의 확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확보</li> </ul>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 추진</li> <li>- 지역문화시설 및 지역공유시설 DB화 및 이용환경개선</li> </ul>

### 목표 4. 지역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인)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구조를 체계화</li> <li>-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구조 강화</li> </ul>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 협의체 구성</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인 정례 포럼 구성</li> <li>- 대전교육청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체 구성</li> </ul>

### 목표 5.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의 개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문화재단 내 광역센터 위상 강화하는 한편 광역센터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재단 내 다른 문화예술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li> <li>- 문화예술교육 관련 평가기능 강화하여 정책 환류를 통해 정책의 내실을 강화함</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제도화 추진을 통해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갖추</li> </ul>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문화재단 내 광역센터 위상 강화 ( ‘교육지원팀’ → ‘문화예술교육지원본부’ 로의 승격 검토)</li> <li>- 광역센터의 정책기능 강화 및 문화재단 연계 사업 확대</li> <li>- 문화예술교육 관련 평가기능 강화</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제도화</li> </ul>

## ■ 추진 방식

- 정책목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각 세부과제 역시 각각 별개의 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통해 연차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현행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경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가기 힘든 현실적 조건이 있음. 따라서 학교예술강사사업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가기보다는 참여하는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합적 협력 프로그램(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5) 단계별 추진 방안

[표46] 대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단계별 주요 추진방안

	주요 목표	추진사업
1단계 기반 조성 (16~17)	1. 지역문화예술 교육역량 강화  2. 문화예술교육 추진기반 마련  3.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4. 협력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활성화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 학교예술강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 자유학기제 대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예술교육인 정례 포럼 구성 - 대전교육청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체 구성 - 광역센터의 정책기능 강화 및 문화재단 연계 사업 확대
2단계 지역 특성화 (16~17)	1. 기획성 정책 프로그램의 확대  2.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3.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의 확대  4.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안정화	- 지역문화예술교육 관련 챌린저 예산 사업 개발 (자유공모형 사업) - 학교예술강사사업을 활용한 교육혁신 시범사업 개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실버세대 복지프로그램개발 등 - 첨단기술 기반 실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시설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 문화예술교육 공간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 추진 - 지역문화시설 및 지역공유시설 DB화 및 이용환경 개선 - 대전문화재단 내 광역센터 위상 강화 (‘교육지원팀’ → ‘문화예술교육지원본부’ 로의 승격 검토)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3단계 사회적 확장성 강화 (16~17)	1.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자생성 강화  2. 정책환류체계 마련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관련 평가기능 강화

## 8. 제언

-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현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평적 시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점과 맥락에 관한 것임.
- 시스템은 주로 정책 영역에 이야기되고 관점과 맥락은 문화예술교육 사업(프로그램 등)을 살펴볼 때 이야기되는데 지역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단위 사업들의 제시하는 관점이나 맥락의 수준이 10년의 정책 역사에도 불구하고 쌓이거나 심화되지 않는다는 점.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런 평가의 근거 중 하나로 대상 중심의 사고는 저소득계층, 노인계층,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계층들을 특징화 하는데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성과 중심적 사고라는 점과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나 지역사회의 각각의 범주뿐만 아니라 두 범주를 넘어서거나 아우르는 다양한 생활, 관계적 범주에서 기획되지 못하고 ‘프로그램과 참여자’ 로만 이해되는 한계들이 생겨났다는 점도 포함됨.
-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교육에서 다뤄지는 교육방법론이나 예술을 경험하는 형식이 차시별 수업, 일회성의 워크숍 등 근대적 방식에 머물도록 하는 문제들로 이어짐. 시민대상이든 인력양성 사업이든 다수의 교육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미진
- 지역문화전달체계(문화재단 등)의 역사가 길지 않은 지역일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되어 있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안을 마련할 만한 자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

○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역량 강화의 필요성

- 연구보고서에서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력양성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임. 지역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사례로 들었던 광주 지역도 오래 전부터 청년 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기획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편이며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던 서울이나 경기도도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대전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예술가들이나 기획자들, 프로그램 등 현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좋은 인력은 일정 기간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사업도 같이하고 평가도 같이 하면서, 때로는 강의도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들의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
-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료들 간의 경험의 질적 축적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역량강화라는 점을 일차적으로 더욱 주목해야 하며 거기에 새로운 인력의 발굴이 더해서 청년정책 등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이 등장할 수 있음.

○ 광역센터의 통합적 사업 수행 기능 강화

- 정책적 역할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정책팀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의 큰 그림 하에서 함께 협력하여 설계하고 이를 통해 지원센터로 내려오는 통합 정책과제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지원센터는 내려오는 사업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지원센터로 유입된 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임.

○ 학교문화예술교육과의 거버넌스

- 제시된 자유학기제를 포함하여 교사연수, 연구년제도(경기도, 서울 교육청 등이 시행),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교육 유휴 시설 등 교육정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화적 지점들과 정책적 고리를 만드는 작업. 통합적 의제들도 도출하면서 평생교육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생활문화, 문화복지 등 인접 정책 영역과의 연계성 강화

- 정책적 연계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며 현장에서 보기에 그만그만한 사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시행되고 있고 적절한 지원 소스가 통합적으로 서비스되지 않아 개별 정책들의 역할이 차별화되고 연계되기 어려움.

- 다만 광역센터나 교육팀 같은 위상으로는 매우 버겁다는 것이 문제임. 추진 전략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개발들이 광역센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예를 들면 실버세대 복지 프로그램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평생학습기관들의 주요 미션이기도 함.

- 그러나 생애주기별 사업 등 기존에 이뤄지지 않은 문화적 경험들이 기획되고 시범 운영되어 공유될 수 있는 역할을 필요함.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많이 이뤄지는 장애문화예술교육만 하더라도 일본의 하나센터와 같은 에이블 아트가 구현되는 사례는 아주 극소수로 이런 지점들이 광역센터에서 받아야 할 프로그램 개발 영역임.

○ 거버넌스 활성화

- 지역 단체나 개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교육, 복지, 여가 등 인접 정책 영역과의 거버넌스도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효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화 전략 마련

- 과학 인프라는 대전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해 보임. 특히 주로 오픈소스, 3D 프린터 등 과학영역의 트렌드인 메이커 무브먼트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행위들이 예술영역에도 존재해 왔고 문화예술교육에도 낮은 수준이지만 적정 기술, 공방 등의 형태로 이뤄져왔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짐.

-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제조가 중요한 예술행위임이 분명하다면 재미있는 프로젝트, 담론, 스토리텔링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짐.

## 참고문헌

### 〈연구자료〉

- 「문화예술교육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김형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 「2013토요문화학교 사회적효과연구」, 임영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 「2014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연구」, 박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 「2014학교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장현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 「국가별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국가별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 「국가별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사례연구」, 권순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방안연구 -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문화예술교육정책전달체계분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중심으로”」, 장원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이다룡, 전남대 석사, 2014
-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장재환, 인천문화예술교육통신 35호, 2014
- 「지역과 문화예술교육」, 금천매개자 교육 교안, 이은진, 2011
- 「지역문화의 핵심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적 논의」, 송경희,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2015

### 〈단행본〉

- 「문화예술교육은 왜 중요한가」, 조 소렐, 열린책들, 2015
- 「문화예술교육」, 김은영, 학이시습, 2014
-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이정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웹사이트〉

- 대전시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홈페이지 <http://www.arte.or.kr>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dcaf.or.kr>
-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jarte.or.kr>
- 서울문화재단홈페이지 <http://www.sfac.or.kr>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sac.or.kr>
- 경기문화재단홈페이지 <http://www.ggcf.kr>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jarte.or.kr>